

천안·아산·서산·당진 충남경제자유구역 신청

산업부에 5개지구 13.3㎢ 대상 지정 시 경제자유구역청 출범 베이벨리 메가시티 사업 속도

충남도는 천안·아산·서산·당진 일원 5개 지구 13.3㎢ 대상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신청했다고 밝혔다.

충남경제자유구역은 도청 핵심 과제인 베이벨리 사업 중 하나로, 국내외 세계적인 기업과 중국 리쇼어링 기업 등을 유치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 중이다.

또 산업·상업·주거·관광을 포함한 복합개발을 추진해 국제학교와 의료 시설, 관광·여가시설 등이 어우러진 새로운 정주 거점을 조성해 외국인과 청년인구의 유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천안 수신, 아산 인주·둔포, 서산 지곡, 당진 송산 등 5개 지구로, 지난해 타당성 조사와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거쳐 선정했다.

천안 수신지구는 1.59㎢ 규모로, 광역 교통 연계가 우수하고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인접해 신기술 개발이 용이한 점을 고려해 미래모빌리티 산업지로 선정했다.

아산 2개 지구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집적지에 인접하고 천안 국가산업단지, 아산 테크노밸리 등과 연결해 있어 인주지구는 5.71㎢ 면적에 디스플레이를, 둔포지구는 2.28㎢에 인공지능(AI)·반도체를 중점 산업으로 설

정했다.

서산 지곡지구(1.84㎢ 면적)는 이차전지 소재·부품과 자동차부품 산업 집적지인 점을 제시했고, 당진 송산지구(1.88㎢ 면적)는 현대제철과 인접해 수소 산업 육성에 유리한 입지 여건을 고려해서 수소 융복합을 중점 산업으로 꼽았다.

충남경제자유구역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8년으로 잡았으며, 사업비는 3조 457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은 조세 감면, 규제 특례, 정주 환경 지원, 조성원가 이하 분양 등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전국 11개 시도에 걸쳐 총 9곳이 지정돼 있으며, 도내에선 황해경제자유구역이 2008년 지정됐다가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따른 투자 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2014년 해제된 이후 없는 실정이다.

도는 충남경제자유구역이 내년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지정·고시되면 경제자유구역청을 출범할 계획이다.

이종규 도 균형발전국장은 “베이벨리 핵심사업 중 하나인 충남경제자유구역을 통해 국내외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우리나라 수출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반반의 준비와 대응으로 대상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전략과 041-635-4740



“무더위 물렸거라”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대천해수욕장 등에서 열린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에서 번외종목인 드래곤보트 부문에서 학생들이 보트에 올라 물을 튀기며 열심히 노를 저고 있다. /보령시

축산환경관리원, 충남 공주로 이전

도·축산환경관리원·공주시 협약
2028년까지 청사 신축·목표
축산농가 등 연 2만명 교육가능

충남도가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을 공주에 유치했다.

지난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이어 축산환경관리원을 추가 유치, 두 기관을 통해서만 연간 4만 명이 공주에서 교육을 받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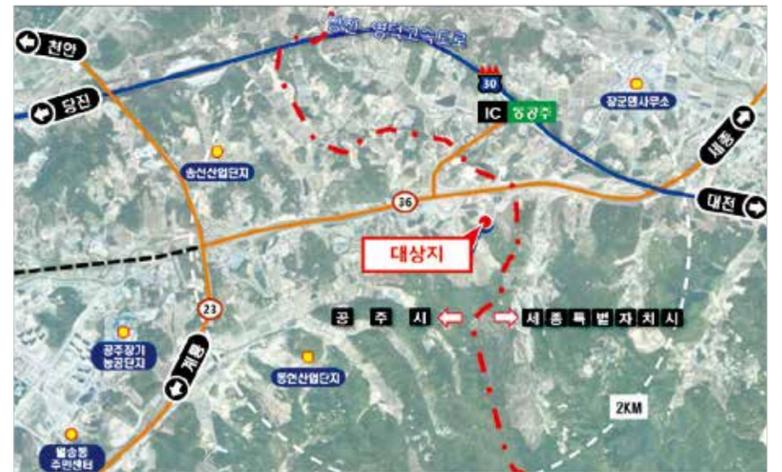
도는 7월 3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축산환경관리원, 공주시와 ‘축산환경관리원 청사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축산환경관리원은 세종시 나성동에 위치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83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업무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나, 청사 공간이 협소하고 교육 인프라가 부족해 청사 신축·이전을 추진한다는 동향을 파악,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이번 결실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공주시 동현동 일원에 2028년까지 285억 원을 투입, 연면적 9400㎡ 규모로 청사를 신축해 이전한다.

축산환경관리원은 탄소중립 친환경 축산 컨트롤 타워로서 ▲지역 축산업과의 시너지 ▲축산환경 개선 ▲동물 복지 향상 ▲축산업 종사자 교육 등을



축산환경관리원 이전 대상지.

하게 된다.

협약에 따라 도는 청사 신축·이전 지원을 위해 정부예산 확보를 중점 추진하고, 건축 관련 절차 자문 및 지원 등 행정 절차 이행에 적극 협조한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원활한 청사 신축·이전을 위해 도의 국비 확보 활동에 공동 대응하고, 충남과 공주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공주시는 신청사 부지를 제공하고, 국비 확보와 건축 행정 절차 등에 협력하며 건축 기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도는 축산환경관리원이 이전을 완료하고 교육센터를 건립하면, 축산환경 분야 종사자와 공무원 등 연간 2만 명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

신청사 건축에 따른 도내 생산유발액은 353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50억 원, 취업유발 효과 209명, 교육센터의 연간 총편익은 573억 원으로 전망된다.

도는 앞으로 축산환경관리원 청사 신축 관련 국비 확보를 중점 추진, 내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26년 착공과 2028년 준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유치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2027년까지 295억 원을 들여 공주시 동현동 6600㎡의 부지에 연면적 9900㎡ 규모로 청사를 신축해 이전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유치과 041-635-3381

AI가 알려주는 용어풀이

문) 충남도 플케어 돌봄 정책과 세부내용에 대해 알려줘

답) 충남도 플케어(Full Care) 돌봄 정책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 실현을 골자로 하는 정책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영유아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 전 시군 설치, 돌봄 시설 부족 해소 및 돌봄 시간 연장,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확대, 공립 학원 설치 및 민간 위탁 운영, 아이 키움 배려 중소기업 육아 지원금, 공공부문 주 4일제 출근제 도입 등입니다.

-네이버 AI 검색 Cue:



도정 비전
힘센충남 대한민국의 힘
도정 현안과제를 강력한 추진력으로 신속히 해결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 도정목표**
-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 가치있고 품격있는 삶
 - 우리 뜻이 통하는 충남

지면안내

| | |
|--------------|-----|
| 국립의대 신설 서명운동 | 4면 |
| 충남 방문의 해 | 7면 |
| 충남의 증가 | 8면 |
| 충남 청년농부가 간다 | 12면 |
| 후반기 의장단 인터뷰 | 15면 |



충남도청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7월 25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지방관련 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 또는 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충남도지사는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조기 발표, 아산 경찰병원 신속 예타 조사 원안 통과, 재난·재해 시 신속·대폭적인 복구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책기획관 041-635-3113

금산·부여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보령시 주산·미산면도 포함 피해 4192건 1528억 잠정집계 주택·공공시설 복구 신속지원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금산·부여군과 보령시 주산·미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5일 금산군과 부여군 등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추가 선포는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7월 15일 논산과 서천 등을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는 것으로, 관계 부처의 정밀조사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도내 특별재난지역은 논산·서천·금산·부여 등 4개 시군에 보령시 주산·미산면 등 2개 면이 포함

됐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대폭 확대되며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주택의 경우 면적에 따라 전과 2000만 원~3600만 원, 반과 1000만 원~1800만 원을 지원받고, 침수는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는 600만 원 가운데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안팎으로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30개 항목이 있다.

7월 8~10일 도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7월 24일 기준 4192건 1528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1429건 958억 9600만원으로 나타나고, 사유시설은 2763건 569억 800만 원으로 계산됐다.

시군별 피해액은 ▲논산 449억 7600만 원 ▲금산 448억 6200만 원 ▲서천 279억 9600만 원 ▲부여 254억 1400만 원 ▲보령 36억 9700만 원 등이다.

한편 도는 그동안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등 62억 원을 긴급 투입했으며, 자율방재단 및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주택 및 농가 일손돕기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자연재난과 041-635-3256

“청양 지천댐 건설 계획 환영”

기후대응댐 후보지 포함 “안정적인 물공급 기대”

충남도가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에 청양군 지천이 포함된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7월 3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는 청양 지천이 댐 후보지에 포함된 것에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댐 건설은 우리 지역의 물 자원 관리 및 안정적인 물 공급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7월 30일 극한 홍수와 가뭄, 미래 용수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발표했다.

권역별로는 금강권역 1곳(청양 지천),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영산강·섬진강권역 3곳이다.

청양군은 현재 하루 1만 2000톤의 용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

령댐(8000톤)과 대청댐(2000톤)에 의존하고, 자체수원은 2000톤에 불과한 실정이다.

용수가 부족하다보니 기업을 유치하거나 확장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며, 2022년과 지난해에는 지천이 범람해 청양·부여 지역에 1184억원의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도는 앞으로 주민·재정·행정 분야 및 환경보전 분야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댐 내 취수구 미설치를 통한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환경 분야는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을 참여하도록 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며, 행정 분야는 각종 인허가 신속 처리 등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8월부터 지역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우려사항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물관리정책과 041-635-4471

해외시장 개척 활동으로 ‘새 수출길’ 났다

중소기업 237곳 4200만 달러 수출 상담 5억 9328만 달러

충남도가 민선8기 출범 이후 10차례 걸친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통해 4200만 달러 규모의 새 수출길을 뚫었다.

중소기업들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출 계약 성사는 물론 6억 달러에 가까운 수출 상담을 하는 등 향후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도에 따르면 도는 2022년 7월 이후 미국, 중국 등 해외와 국내에서 10차례 걸쳐 237개 중소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펼쳤다.

이를 통해 각 기업은 2040건 5억 9328만 달러의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4194만 8000달러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지난 4월 예산 일원에서 열린 제25차 세계대표자대회와 연계한 수출상담회에서 3956만 6000달러 규모의 상담을 통해 1879만 8000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

5월 태국 방콕식품전시회에서 342만 2000달러 상담, 1706만 달러 수출 계약 성과를 올렸다.

6월 체코 프라하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가진 수출상담회에서는 1379만 달러 상담, 334만 달러 계약을 했다.

도 관계자는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통해 거둔 성과는 도내 기업 전체 수출액에 비하면 크지 않지만, 중소기업들이 해외에서 새로운 판로를 찾고, 시장 확대 교두보까지 확보한 점은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사무소 운영 ▲해외시장개척단 가동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 ▲충남형 해외바이어발굴 매칭 지원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등 21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9월 25일 도내에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투자통상정책관 041-635-3361

수출 호조에 무역수지 ‘전국 1위’

상반기 231억 달러 흑자

충남도가 올해 상반기 무역수지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도에 따르면 1~6월 도내 기업들의 수출액은 438억 14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382억 3900만 달러에 비해 14.6% 증가한 규모다.

수출 순위는 경기도 784억 300만 달러, 울산 448억 1000만 달러에 이어 세 번째다.

품목별 수출액은 메모리반도체가 단가 상승과 서버 중심 전방산업 수요 확대에 힘입어 157억 8400만 달러로 집계되며 사상 최고 기록을 다시 작성했다.

이어 ▲OLED 45억 6700만 달러 ▲전산기록매체 30억 360만 달러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25억 5400만 달러 ▲경유 14억 3500만 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수입액은 207억 1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216억 3600만 달러에 비해 4.3% 감소했다.

유연탄과 화학원료, LNG 등 원자재 가격 안정이 전반적인 수입액 감소로 나타나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른 무역수지는 231억 300만 달러 흑자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한편 도는 올해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사무소 운영 ▲해외시장개척단 가동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 ▲충남형 해외바이어발굴 매칭 지원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등 21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투자통상정책관 041-635-3361

천수만 해역 ‘고수온 경보’ 발령

3일 이상 28.0℃ 이상 기록 현장대응반 중심 총력 대응

폭염이 연일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 서해 천수만에 고수온 경보가 내려졌다.

도는 8월 2일 오후 2시 기준 천수만 해역에 ‘고수온 경보 단계’가, 가로림만 해역에는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됐다고 밝혔다.

고수온 경보는 3일 이상 바닷물 온도가 28도를 유지할 경우, 고수온 특보 발령 기준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이 내리게 된다.

이번 경보 발령은 천수만과 전남 해역 수온이 27.8~29.2도를 기록하고 있고, 향후 추가로 수온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조치다.

고수온 경보에 따라 도는 현재 가동 중인 ‘고수온 피해 현장대응반’을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해 나갔다.

우선 서해수산연구소, 시군 등과 협력을 통해 ▲양식장 물고기 선별 이동 금지 ▲먹이 공급 중단 등을 유도하며,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액화산소 24시간 공급



충남도 현장대응반이 양식장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차광막 설치 ▲조류 소통 등의 조치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양식어가 피해 발생 시 시군별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합동 피해 조사와 어업인 지원 계획 수립 등 복구 지원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장진원 도 해양수산국장은 “양식어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액화산소 공급 등 어업인의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대응반 활동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수산자원과 041-635-4137



충남교통방송, 내년 6월 첫 전파

이달 개국 준비 전담반 가동
내포신도시 신청사 공정률 30%
교통·자연재난정보 실시간 제공



최근 공사중인 모습.

충남도 내 유일 지상파 라디오가 될 도로교통공단(TBN) 충남교통방송 개국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도에 따르면, 최근 충남교통방송 개국 준비 합동 전담반(TF)을 꾸려 가동에 들어갔다.

충남교통방송 신청사는 내포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산학시설 용지 내 7512㎡의 부지에 295억 6000만 원을 투입해 지상 3층, 연면적 2994㎡ 규모로 건립 중이다.

신청사는 현재 3층 난간 구조물 및 철탑 콘크리트 타설을 마치며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신청사 내에는 충남 전역 교통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교통 정보 상황실과 200석 규모 공개홀 등을 설치하고, 외부에는 다기능 프로그램을 위한 광장과 소규모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연장 등도 만든다.

운영 인원은 39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충남교통방송이 내년 6월 문을 열고 가동을 본격 시작하면, 도민들은 103.9㎒를 통해 교통 등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충남교통방송 적기 개국을 위해 7월 도로교통공단, 충남개발공사, 충남혁신도시조합 등과 합동 전담반(TF)을 꾸리고 운영을 시작했다.

개국 때까지 가동하는 전담반(TF)은 운영팀과 건설팀, 협조기관으로 나뉘었다. 주요 역할은 ▲사업비 및 인력 확보 ▲도정 협력 사업 발굴 ▲프로그

램 기획 및 대외 홍보 ▲시설공사 추진 및 방송장비 시스템 구축 ▲중계소 설립 ▲도로 표지판 및 기반시설 정비 등이다.

도 관계자는 “충남교통방송은 220만 충남도민의 방송주권을 회복하는 상징과도 같다”며 “충남교통방송이 문을 열면 도민들은 실시간으로 도내 교통과 자연재난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관할 구역과 본부·지사 위치 불일치로 도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추려 유치 작업을 중점 추진 중이다.

도는 지난해 8월 도로교통공단과 ‘충청남도민 교통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공공기관 본부·지사 분리·독립 및 유치 첫 결실이자, 충남혁신도시 지정 이후 첫 공공기관 유치 성과를 올렸다.

이 협약은 ▲충남교통방송 설립 추진 ▲도로교통공단 충남지부 대전에서 분리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보관 041-635-4912



폭염 속 금빛 결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7월 30일 보령시 청소면 일원에서 초조생종 빠르미2 수확 시연회를 개최했다. 빠르미2는 빠르미와 수확 시기(모내기 이후 80일 안팎)는 비슷하지만, 도열병에 강하고, 아밀로스 함량이 11% 가량으로 낮아 밥이 찰지고 맛이 우수하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041-635-6050

백일해 집단환자 발생 대응 ‘총력’

예방접종 독려 등 전파 차단

충남도는 최근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 등으로 충남감염병관리지원단, 도내 15개 시군, 도교육청, 천안교육지원청과 ‘충청남도 백일해 유행 대응 관련 회의’를 열고, 백일해 대응 현황을 살폈다.

제2급 법정감염병인 백일해는 보르데텔라균(Bordetella pertussis)에 의해 감염돼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비말로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콧물이나 경미한 기침으로 시작해 2~3주 이상 지속되는 발작성 기침이 특징이다.

면역력이 없는 집단에서는 1명이 12~17명을 감염시킬 만큼 전파력이 매우 강하지만, 예방접종력이 있는 경우 무증상 또는 가벼운 증상을 나타내므로 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추가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앞으로 도는 백일해 집단환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해 접촉자 증상을 감시하고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추가 확산 방지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또한 영유아 등 고위험군으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감염병관리과 041-635-4368

예산 쪽파 고로케·당진 새우 파스타

CJ푸드빌, 충남 농수산물 활용 메뉴 선보인다

도·당진시·예산군·CJ푸드빌 협약
9~10월 제품 출시 지역상생 기대

충남도가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한 외식·제빵 제품으로 유명한 종합 외식 서비스 기업과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도는 8월 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당진시, 예산군, 씨제이(CJ)푸드빌과 ‘충남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업의 상품화·유통 역량을 활용해 도내 우수한 농수산물 특화 제품을 개발하고 전국적으로 판매하는 등 판로를 넓히고자 추진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도내 생산되는 농수산물 유통을 활성화하며, 동반성장을 도모한다.

주요 내용은 ▲충남 농수산물 활용 제품 개발 및 판매·홍보, 지역 농수산물 매입 확대 ▲상품 개발 지원 및 농수산물 생산·공급 체계 구축 ▲제품 수요에 맞는 농수산물 안정적 공급 및



※로컬(local)과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인 로코노미(loconomy)는 주로 동네·골목상권에서 소비가 이뤄지는 현상을 말하며, 지역에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가져다준다. 식품·유통업계에서의 로코노미는 지역 특산물을 먹거리 상품으로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홍보·판촉 지원 ▲각종 신규 사업 발굴·지원 상호 협력 등이다.

구체적으로 씨제이(CJ)푸드빌은 9월 예산 쪽파를 활용해 개발한 고로케와 크림치즈를 전국 푸레쥬르에 출시할 예정이며, 10월에는 당진 새우를 활용한 스테이크, 파스타, 전골 등을 틱스와 더플레이스, 제일제면소에 출시할 예정이다.

도는 시군과 씨제이(CJ)푸드빌을 연

계해 주고, 상품 개발 지역 상생 프로젝트를 위한 스마트팜 등 산지 발굴을 지원해 지역 농수산물 이미지 제고에 앞장선다.

각 기관은 앞으로 추가 제품을 선보이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면서 지역 대표 특산물을 활용해 먹거리 등 기업 제품으로 출시하는 ‘로코노미’ 열풍을 이어갈 계획이다.

/농식품유통과 041-635-4164

‘힘센충남 풀케어 돌봄’ 내실 다져

도·시군 정책 협력 회의 개최

충남도는 8월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힘센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관련 도·시군 정책 협력 회의를 열고, 주요 사업 계획 및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선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구현을 위한 ▲충남형 365×24 어린이집 ▲지역 기관·단체 연계 아동 돌봄 강화 ▲돌봄 공백 해소 온종일 아동 돌봄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 등 4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충남형 365×24 어린이집은 근로

형태 다양화 등 보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365일 24시간 어린이집을 지정·운영하는 사업이다.

도는 현재 도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타 시도 사례를 검토하는 등 세부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달 말 개소를 목표로 1호점 시범 운영을 준비 중이다.

이동유 도 복지보육국장은 “도·시군 간 긴밀한 협력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보육정책과 041-635-2614



일시 8.8.-8.11. 장소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 및 머드테마파크



일시 8.15.-8.18. 장소 보령요트경기장 및 대천해수욕장 수역



충남 국립의대 신설 220만 도민 마음 '하나로'

10월까지 100만 서명운동 돌입
결의대회·정책토론회 개최도

충남도가 지역의료 안전망 역할을 할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220만 도민의 염원을 모으는 범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도는 8월 1일 '국립의대 설립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족한 의료 기반을 개선하고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국립의대를 도내 신설하기 위한 10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도는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전국 최저 수준인 1.5명이며, 15개 시군 대부분 의사 수가 1명 안팎이고 1명 미만 시군도 5곳에 달한다.

이에 도는 의사 수 부족 등 지역의료 기반 약화, 필수의료 공백 심화로 위중증 응급 의료에 따른 환자들의 원정 치료 부담이 날로 늘어나는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정부에 국립의대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도는 오는 10월까지 100만 명 서명 목표 달성을 위해 도·시군 공무원과 관계기관, 민간 단체, 지역대학, 출향인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홍보 활동과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청과 시·군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관계기관 내 서명운동과 함께 각종 교육·회의·행사 진행 시 참여자의 서명을 유도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역, 터미널, 마을회관, 아파트 게시판 등에도 서명부를 비치한다.

도·시군 누리집에 접속하면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누구나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록 온라인 서명운동도 병행한다.

도는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도민의 열망을 하나로 모아 정부에 서명부를 전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충남 국립의대 신설이 확정될 때까지 결의대회, 정책토론회 등을 지속 개최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론을 조성할 것"이라며 "충남 국립의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보건정책과 041-635-2642

폭폭 찌는 무더위 야외활동 주의

폭염 돌봄 '안전파트너' 활동

충남도는 '충남 세이프존(SAFEZONE)' 연계 안전 파트너 활용 폭염 돌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충남 세이프존은 재난이나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 등의 발생에 대해 추진하는 충남형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도내 5899개 전체 마을 대상 '1마을 1대피소' 지정·운영 ▲마을 대피계획 수립 ▲스마트 마을 방송을 통한 상황 전파 등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안전 파트너를 활용해 충남 세이프존의 역할을 극대화해서 여름철 무더운 날씨로 인한 도내 5899개 마을 주민의 건강 위

험을 예방하고자 실시한다.

도는 지역사회와 폭염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고령화된 지역 여건에 맞춰 개인 휴대전화 및 가정 스피커를 활용해 마을 주민은 물론 타지에 사는 자녀 등 보호자에게도 1일 2회 상황을 전파할 예정이다.

안전 파트너를 투입해 60세 이상 고령층 가정을 찾아 안부를 확인하고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살필 계획이다.

오전 10시~오후 5시 가장 위험한 시간대에 영농작업장, 야외 논밭에서 일하는 고령층 작업자를 대상으로 야외 활동 중지 요청 등도 추진한다.

/자연재난과 041-635-3254

도정계시판



늘푸른충남호, 유부도 해양쓰레기 처리 전국 첫 '해저터널구조대' 출범

충남도 환경정화운동반선인 '늘푸른충남호'가 최근 집중호우로 서천 유부도에 떠 밀려온 해양쓰레기 처리에 나섰다. (사진)

늘푸른충남호는 초목류 등 해양쓰레기를 육상의 집하장으로 집중 운반하고 있으며, 7월 22~25일 기준 운반한 양은 30여 톤이다.

유부도는 그동안 월 2회 운항해 왔으나, 집중호우로 해양쓰레기 양이 평소보다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운항 일정을 확대했으며, 8월 기상 상황을 고려해 월 4회 이상 운항할 계획이다.

장진원 해양수산국장은 "해양쓰레기로 인한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에 유의해 최대한 운항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정책과 041-635-4778

충남소방본부는 전국 최초로 출범한 해저터널구조대가 7월 30일 보령시 오전면 해저터널관리사무소 임시 청사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저터널구조대는 특수구조대원 13명으로 구성, 24시간 3교대로 운영한다.

보유 장비는 소방펌프차 등 기동장비 2대와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등 구조장비 20여 점이다.

도 소방본부는 이번 해저터널구조대 신설·가동으로 국내에서 가장 긴 보령해저터널 내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보령 서부와 태안 남부 등 서해안권 재난에 대한 현장 대응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권혁민 도 소방본부장은 "교통 인프라 변화에 맞는 새로운 출동 거점 구축으로 원산도를 비롯한 서해안 권역 해양레저관광단지 소방 안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소방본부 041-635-5589

추석 '불량 성수품' 합동 단속

충남도는 8월 5~30일 도내 추석 성수품 제조·유통·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9월 17일)을 앞두고 도내 성수품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 유통 행위나 위생관리 불량 등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와 시군 특별사법경찰,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한다.

주요 대상은 도내 추석 성수품 제조업소와 대형마트 등이며, 중점 점검 내용은 불량 식품 제조 및 부정 유통 등이다.

도는 또 영세 제조·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현장 홍보 및 교육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명절에는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한 수요가 늘며 불량 제품 제조·유통 가능성도 높아진다"면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들이 상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재난과 041-635-3128

1호 마을관리소, 당진 고대면서 개소

충남도는 7월 25일 당진시 고대면 고대커뮤니티센터에서 '충남 1호 마을관리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고대면 마을관리소는 앞으로 간단한 집수리나 생활공구 대여, 공간 공유 서비스 등 기본 사업과 함께, 우리동네 빨래방 서비스 등 특화 사업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4곳에서 마을관리소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8월 당진시 우강면과 부여군 초촌면, 태안군 소원면 등 3곳에서 마을관리소 문을 열 계획이다.

충남 마을관리소는 농촌 지역이나 원도심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 불편 해소, 안전 관리, 환경 정비 등을 추진한다.

/새마을공동체과 041-635-3473

마음모아 충청남도

백제 가을밤으로의 초대

2024 7.29 MON ~ 8.18 SUN

고향사랑e음 [\(https://lovegohyang.go.kr/\)](https://lovegohyang.go.kr/)

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제

1등

16명

롯데리조트부여 숙박권 (동반 1인 가능)·디너쇼, 9.7(토)~9.8(일) (1박 2일)

백제문화단지 관람권 및 백마강유람선 탑승권 제공

2등

150명

2만원 상당 기프트콘

3등

200명

1만원 상당 기프트콘

참여 기간: 2024. 7. 29. MON ~ 8. 18. SUN

참여 방법: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접속, 기간 중 충청남도 도청 및 15개 시군 중 원하는 곳에 10만원 이상 고향사랑 기부하면 자동 참여

선정 방법: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

당첨지 발표: 8. 19. (월)부터 일주일 내 개별 문자발송

문의: 충남도청 새마을공동체과 041-635-3481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자치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지에 사용하는 제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충청남도



“탄소중립 실천하고 지역화폐 받자”

지방정부회의 ‘탄소업수’ 협약
1인당 연 최대 10만원 지급

충남도가 일상 속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충남형 탄소중립 포인트제’를 시행한다.

도는 7월 3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6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시·군, 엔에이치(NH)농협은행과 탄소중립 실천 유도를 위한 충남형 탄소중립 포인트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탄소업수’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와 시군은 탄소업수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도민과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적극 홍보한다.

엔에이치(NH)농협은행 충남본부는 탄소업수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금융 우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저변 확대에 앞장선다.

탄소업수는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탄소저감 활동에 동참하면 포상으로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식이다.

탄소중립 실천 항목은 ▲전자영수증 발급 ▲대중교통 이용 ▲전자우편(메일함) 정리 ▲환경교육 행사 참여 ▲집에서 식물 키우기 등 도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항목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포인트는 1인당 연간 최대 10만 원

적립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에 더해 엔에이치(NH)농협은행은 탄소업수에 가입하고 실천하는 도민에게 대출 이율 최대 0.1% 인하, 환전 수수료 최대 70% 할인을 제공한다.

도는 오는 12월까지 도내 전 시군에서 시범 운영 후 보완 사항을 반영해 내년부터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지방정부회의에서는 ‘충청남도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 기본계획(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범도민 100만 서명운동 등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자치행정과 041-635-3593

태안원에치유박람회 국제행사 승인

기재부 국제행사심사위 통과
2026년 안면도 일원서 개최

‘2026 태안국제원에치유박람회’가 ‘국제행사’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충남도는 최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태안국제원에치유박람회가 정부 지원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태안국제원에치유박람회는 정부 공인 국제행사로 국비 44억 2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태안국제원에치유박람회는 2026년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안면도 일원에서 ‘자연에서 찾는 건강한 미래 원에&치유’를 주제로 열린다.

행사장은 안면도 꽃지해안공원 일원 주행사장과 학술행사장, 안면도

수목원 등 부행사장으로 구분한다.

전시관은 ▲원예산업 발전과 미래 비전을 볼 수 있는 주제관과 ▲원예산업의 미래 기술을 공유하는 미래혁신관 ▲원에 치유를 볼 수 있는 그린힐링관 ▲기업 및 시도별 원에치유 지원 정책 공유의 장인 산업교류관 ▲대륙별 원예산업을 만날 수 있는 국제교류관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박람회에 40개국 18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 3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과 4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도는 앞으로 종합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콘텐츠 개발과 국내외 홍보 등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스마트농업과 041-635-4049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출범
충남도는 어린이 스스로 안전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결성하고 7월 2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는 도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했으며, 총 37개 학교 149명을 선발했다. 앞으로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는 ▲학교 주변 위험 요소 발굴 및 신고 ▲안전 체험 교육 ▲도전! 재난 안전 골든벨 등 다양한 안전 관련 활동에 참여한다. 8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대상으로 지진 대비, 화재 대응, 항공기 탈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안전 체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정책과 041-635-2362

도 정책수석보좌관 유재룡 임명

충남도는 신임 정책수석보좌관에 유재룡(사진) 전 충남도 산업경제실장을 8월 1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유재룡 신임 정책수석보좌관은 1964년생으로 도 경제통상실 경제정



책과장,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장, 공무원교육원 교육총괄과장을 거쳐 미래산업국장, 산업경제실장 등을 지냈다.

칭찬의 힘

독자투고

펜싱(fencing)은 철망으로 된 마스크를 쓰고 검을 쥔 두 명의 경기자가, ‘피스트’라고 불리는 마루 위에서 서로 찌르거나 베는 방법으로 득점을 얻어 승부를 겨루는 경기다.

예페, 사브르, 플뢰레의 세 종목이 있으며 개인전과 단체전이 있다. 7월 26일 2024 파리 올림픽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오상욱 선수(대전시청 소속)가 금메달을 따내며 한국 펜싱 사상 처음으로 그랜드슬램(올림픽·세계선수권·아시아게임·아시아선수권 우승)을 이뤄냈다.

한마디로 쾌거(快舉, 통쾌하고 장한 행위)였다. 오상욱의 이런 위대한 업적에 원우영 코치는 평소에도 “널 이길 사람은 없어!”라며 격려해 준 게 주효했다는 우승 후일담이 나왔다.

격려는 이처럼 힘이 세다. 격려(激勵)는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워 줌’을 뜻한다. 평소 자녀에게도, 남편(아내)에게도 격려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아들(딸)은 보면 볼수록 더 예뻐.”라든가 “이번에 (학교) 성적이 또 올랐다면? 역시 내 아들답다!”라는 격려는 칭찬과 매칭(matching)되면서 자녀의 사기를 더욱 상승시킨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다. 애어컨 없으면 못 사는 요즘 같은 살인적 폭염에 “오늘도 밖에 나가 일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요! 얼음 동동 수박화채 만들어 놔오니 어서 이거부터 드세요.”라는 한 마디는 더위를 잊게 만든다.

8월 10일 일곱 번째 저서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로 준비할 게 많다. 처음에 책을 낸 건 지난 2015년이다. 9년 만에 7번째 책을 내는 것이니 1년 만에 한 권꼴로 책을 발간한 셈이다.

‘시작이 반’이라더니 정말 맞는 말이다. 9년 전에 첫 책을 내지 않았다면 단언컨대 오늘날의 나는 없었다. 그럼, 이처럼 연속 집필의 추진과 원동력은 어디서 기인했을까?

맞다. 주변의 칭찬이었다. “홍기자는 정말 대단해. 당신을 이길 사람은 없어!”라는 칭찬이 결국 나를 작가의 길로 인도했다. 사람들은 칭찬받을 것을 좋아한다. 이는 인간의 본성 중 하나다.

칭찬은 상대방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사람들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자신감 향상과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 상대방과의 관계 개선, 소통 원활 등의 효과까지 유발한다.

얼마 전 아내와 저녁을 함께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내 손을 지긋이 잡더니 “알고보니 당신 참 멋지더라!”라고 귓가에 소곤소곤 말했다. 순간, 감전된 듯 짜릿한 감동이 온 몸에 전해졌다. ‘널 이길 사람은 없어’라는 격려 이상으로 나를 북돋아주고 힘을 나게 해주는 따뜻한 한마디였다.

/홍경석(대전광역시)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원고 보내는 곳: cnnews@korea.kr

문의: 041-635-4932

*도경신문 원고료 지급기준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우리 동네 문화공간·문화행사는?

본격적인 휴가철과 여름방학을 맞아 우리 동네의 문화공간과 문화행사를 살펴보고 가족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문화 나들이를 해보세요.

우리 동네 문화공간 (미술관·박물관·문학관·영화관)

| 지역 | 미술관 | 박물관 | 문학관 | 영화관 |
|----|-----|-----|-----|-----|
| 당진 | 2 | 4 | 4 | 0 |
| 아산 | 1 | 1 | 10 | 10 |
| 예산 | 1 | 2 | 7 | 3 |
| 홍성 | 2 | 1 | 3 | 2 |
| 공주 | 6 | 1 | 9 | 1 |
| 청양 | 0 | 0 | 0 | 0 |
| 보령 | 1 | 2 | 0 | 2 |
| 부여 | 2 | 4 | 0 | 0 |
| 서천 | 1 | 1 | 0 | 0 |
| 논산 | 1 | 2 | 1 | 3 |
| 금산 | 3 | 1 | 0 | 0 |

우리 동네 문화공간·문화행사 알아보기

| 문화공간 | 문화행사 |
|-------------|---------------------|
| 충남문화포털 문화공간 | 충남문화포털 문화행사 |
| 문화시설 유형 | 문화행사 |
| 시군 검색 | 시군·분야·기간·키워드 순으로 검색 |
| 문화시설 명칭 검색 | 문화행사 목록 확인 |
| 문화공간 목록 확인 | |

충남 도민을 위한 알차고 유익한 문화정보 통합 플랫폼!

충남문화포털 | <https://cnc.cacf.or.kr>



덕산온천관광호텔, 연수·휴양시설로 탈바꿈

충남개발공사 98억 4000만원 매입 내년 착공해 2027년 6월 준공 계획

예산 덕산온천관광호텔이 연수·휴양시설로 탈바꿈 할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7월 25일 충남개발공사가 98억 4천만원에 덕산온천관광호텔을 매입했다.

총 1만 6천836㎡,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62실을 갖춘 덕산온천관광호텔은 경영악화 등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2018년 3월 폐업했다. 이후 공매가 7차례나 진행됐으나 모두 유찰됐다.

그동안 충남도는 내포 혁신도시의 배후도시 발전 방안을 모색하던 중 대전광역시의 배후도시인 유성과 같이 덕산면을 개발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군과의 적극적인 협의 속에 덕산온천관광호텔 개발을 추진해 왔다.

도와 예산군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 지난 5월 덕산온천관광호텔 개발 사업은 투자사업평가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 결과 '적정' 평가를 받기도 했다.



덕산온천관광호텔

충남개발공사는 호텔 철거와 시설설계 공사를 병행한 이후 내년 12월부터 공사에 착공해 2027년 6월 준공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매입 이후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및 환경보전방안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그 외 군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최대한 지원할 예

정이다. 아울러 군은 덕산면이 충남 내포 혁신도시의 배후도시로서 대전의 유성과 같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군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예산군

공주시, 'K-드론 배송' 개시

물류 취약지역 야식·생필품 운반 11시~20시 30분까지 주문 가능

전국에서 3번째로 큰 드론전용비행구역을 자랑하는 공주시가 8월부터 본격적인 드론 배송 서비스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올해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한 '2024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서 공원 배송 분야에 선정되면서 국비 4억 7000만원을 확보하고 그동안 사전 준비 작업을 벌여왔다.

AI 드론관제센터를 구축한 뒤 물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배송거점과 배달점을 선정해 비행로를 구축하고 슬한 테스트 비행을 거쳐 국토교통부로부터 야간 비행 특별 승인도 받았다.

드론 배송 서비스가 이뤄지는 3개의 배달 거점은 ▲산성시장 주차타워 인근 ▲사곡면 유구천 앞 공용주차장 내 ▲사곡면 마곡사 관광단지 야외무대 일원 등으로 평소 관광객과 연수생들이 자주 방문하지만 주변에 음식점 등의 편의시설이 부족했던 곳이다.

배달점은 배달 거점을 중심으로 중앙소방학교교육원, 한국토지정보공사교육원, 한국문화연수원, 505펜션, 해월카라라 등 총 15곳이다.

이들 물류 취약지역에 음식 등을 배달할 참여 업소 27곳도 선정됐다. 시는 실증 이후 상용화를 대비해 그동안 공주산성시장상인회 및 사곡면상인회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총 4대의 드론을 투입해 배달점별 특성에 맞는 야식과 알밤, 관광상품, 반려동물 간식, 생필품(세면도구, 수건 등) 등을 배송할 예정이다.

주문 방법은 공주시 배달앱 '취약지역'을 이용해 드론배송을 클릭한 뒤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선택 후 결제를 하면 배송이 시작되며 주문 가능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이다.

한편, 8월 2일 열린 기념식에서는 배송 개시를 기념해 1호 주문 행사로 공주페이 앱을 통해 '간밤'을 주문했는데 주문 약 10분만에 물품을 실은 드론이 나타나 안전하게 배송지에 낙하시키는 과정을 지켜봤다.

/공주시



“미래 사격 메달리스트는 바로 나” 국가대표 사격팀이 파리 올림픽에서 연일 메달 획득 낭보를 전해주는 가운데 충남 서산지역 초등학생들이 7월 31일 이번 올림픽 메달 기대주 이은서 선수를 배출한 서산시청 사격팀 지도 아래 스포츠사격을 체험하고 있다. 8월 2일까지 이어진 체험교실에는 초등학생 51명이 참여했다.

국가대표 사격팀이 파리 올림픽에서 연일 메달 획득 낭보를 전해주는 가운데 충남 서산지역 초등학생들이 7월 31일 이번 올림픽 메달 기대주 이은서 선수를 배출한 서산시청 사격팀 지도 아래 스포츠사격을 체험하고 있다. 8월 2일까지 이어진 체험교실에는 초등학생 51명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제공

청양 견고추·고춧가루 사전예약 접수

8월 23일까지 칠갑마루로 신청 문화축제기간 한정판매 진행

청양군은 8월 1일부터 23일까지 '2024년 청양고추구기자 문화축제' 견고추(고춧가루) 사전예약을 받는다.

청양에서 생산된 양질의 견고추 6kg(10근) 600개와 고춧가루 1kg 1000개 한정판매로 진행되며, 사전예약 고객들을 대상으로 1만원 상당의 견고추(200g)와 5000원 상당의 청양산 표고분말스틱을 제공한다.

금년 견고추와 고춧가루의 예상가격은 견고추 6kg(10근) 18만 원, 고춧가루 1kg당 4만 5000원이다. 사전예약 고객들은 예약 기간 내에 주문을 완료하고, 추후 가격확정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뒤 안내계좌를 통해 입금하면 된다.

사전예약 신청은 청양군 농특산물 공식 쇼핑몰 '칠갑마루' 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대전 유성구 학동청양군 먹거리 직매장에서 대면 주문도 가능하다.

/청양군

‘반려동물과 함께’ 태안 댕댕버스 8월부터 운영

매회 20명씩 120명 대상 서울서 출발 1박2일 여행

여름 피서철 서울에서 출발해 태안에서 반려견과 함께하는 1박2일 댕댕버스가 8월 9일부터 24일까지 운영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용 버스인 ‘태안 댕댕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출발해 태안에서 반려견과 함께 1박2일간 여행을 즐기는 상품이다.

참여자들은 태안의 대표 해수욕장 중 하나인 안면도 꽃지 해수욕장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물놀이 등 자유시간을 즐길 수 있다.

태안 로컬푸드 직매장과 팜카밀레 허브농원 등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여행지를 둘러보고 반려동물 동반 펜션에서 소중한 추억도 쌓을 수 있다.

출발일 및 시간은 매주 금·토요일 오전 8시며 출발 장소는 ▲서울숲(죽전 경우) ▲동작역A(보라매공원·평촌중앙공원 경우) ▲동작역B(양재·죽전 경우) 등이다.

신청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전문 여행사 ㈜펫츠고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매회 2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예약요금은 7만 9000원으로 반려견 1마리와 동반 여행이 가능하며 소형견의 경우 4000원, 중·대형견은 6000원이 추가된다. 숙박요금은 별도이고 미리 지정된 태안군 내 애견동반 숙소 17곳 중 한 곳을 예약하면 댕댕버스 신청이 확정된다.

군은 참여자 10명 당 1명의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댕댕버스 운영 후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후 다양한 반려동물 관광상품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한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태안 꽃지해수욕장에서 추억을 만들고 있다.

군 관계자는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태안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반려인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이번 태안 여름 댕댕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 반려인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상품 개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태안군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제공

나사렛 대학과 업무협약 체결 실무교육 제공·고용 알선 지원

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상임대표 황화성)가 7월 25일 나사렛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제공에 나선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고용 지원 사업 공동 참여 ▲구인·구직 정보 교류를 통한 고용 알선 사업 연계 ▲고용 지원에 관한 교육 지원 및 자료 교환 등 상호교류 ▲고용 지원에 필요한 인프라 및 기술적 지원 제공 ▲장애인 고용에 대한 법률 및 제도 지원 제공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구직자에게는 장애 학생지원센터의 취업실무교육 제공하고, 장애인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

에게는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는 2024년 4월부터 일자리지원부를 창설해 ‘장애인 고용 연계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지원부가 창설되면서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의 기존 사업인 ‘중증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도 더 활기를 띠 전망이다.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의 일자리지원부는 장애인 고용 연계 사업을 통해 장애인에게는 ‘괜찮은’ 맞춤형 일자리를 알선하고, 사업체에게는 고용 후 관리까지 지원한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참여 신청은 전화 및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 홈페이지(cndaf.or.kr)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 041-417-6000



올 여름휴가, 충남 섬이면 충분해



⑩ 매력 넘치는 충남 섬

“걷는 길마다 눈 앞에 펼쳐지는 시원한 바다, 완만한 해수욕장, 그리고 풍성한 수산물까지 ... 충남의 섬으로 오세요”

8월 8일은 ‘섬의 날’이다.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국가 기념일이다. 올해 제5회 섬의 날 행사는 ‘섬, 좋다’는 주제로 행정안전부와 충청남도, 보령시 주최로 8일부터 11일까지 보령머드광장에서 열린다.

광장에는 섬의 역사 등을 알 수 있는 전시관이 설치된다. 9~10일에는 백섬백길 걷기 대회 중 하나로 영화 배우 류승룡과 함께 72코스인 보령시 삼시도 돌레길, 73코스 효자도 돌레길을 걷는 행사도 마련돼 있다. 섬의 날을 맞아 충남지역 섬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자.

보령 앞바다 경탄스러운 오섬 (awesome, 五島)의 매력

보령 앞바다의 섬은 제각각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독특한 역사와 문화, 주민들의 생활양식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오징어, 전복, 주꾸미 등 수산물을 중심으로 먹거리도 풍부하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찾아가고 싶은

섬’을 선정하는 데 2019년에는 호도가 ‘풍경 좋은 섬’으로, 소도가 ‘신비의 섬’으로, 고대도가 ‘이야기가 있는 섬’으로 선정됐다. 2020년에는 원산도가 ‘체험의 섬’, 녹도가 ‘풍경 좋은 섬’, 장고도가 ‘신비의 섬’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1년에는 삼시도가 ‘걷기 좋은 섬’으로 뽑혔다.

이들 섬은 2021년 12월 국내 최장의 보령해저터널 개통으로 접근성이 훨씬 좋아졌다. 대전항에서 계절마다 다르지만 하루 1~3차례 운행한다.

삼시도는 해수욕장 경사가 완만해 가족 단위 해수욕객이 많이 찾는 곳. 갯바위에서 낚시도 가능하고 소나무 숲 야영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진너머

해수욕장 등도 유명하다. 3km에 달하는 돌레길도 마련돼 있다.

고대도에는 국내 최초 개신교 선교 활동을 펼친 칼 귀츨라프의 역사를 소재로 한 기념공원이 있다. 또 별빛정원과 2.9km 구간의 ‘선교사의 길’ 등이 조성돼 있다.

충남의 7개 섬길, ‘백섬백길’로 선정돼 우리나라에는 제주 올레길을 시작으로 걷기 바람이 불면서 섬에도 우후죽순 걷는 길이 생겼다. 하지만 일부 섬 길을 제외하곤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섬연구소가 섬 길을 되살리기 위해 전국 4000여 개 섬 가운데 가장 걷기 좋은

길 ‘백섬백길’을 선정했다. 섬 돌레길이다.

충남에는 모두 7곳이 선정됐다. 외연도돌레길(70코스)에서 시작해 호도돌레길(71코스)~삼시도돌레길(72코스)~효자도돌레길(73코스)~죽도돌레길(74코스)~안면도노을길(75코스)~가의도소솔길(76코스)이다.

죽도돌레길은 홍성군의 유일한 유인도로 죽도항에서 시작해 해안가를 따라 섬 한귀를 돌아 나오는 3.5km 구간이다. 각 스팟마다 울창한 바닷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에서 배를 타고 들어간다.

태안군 근흥면에 있는 가의도는 섬으로 향하는 배를 타는 순간부터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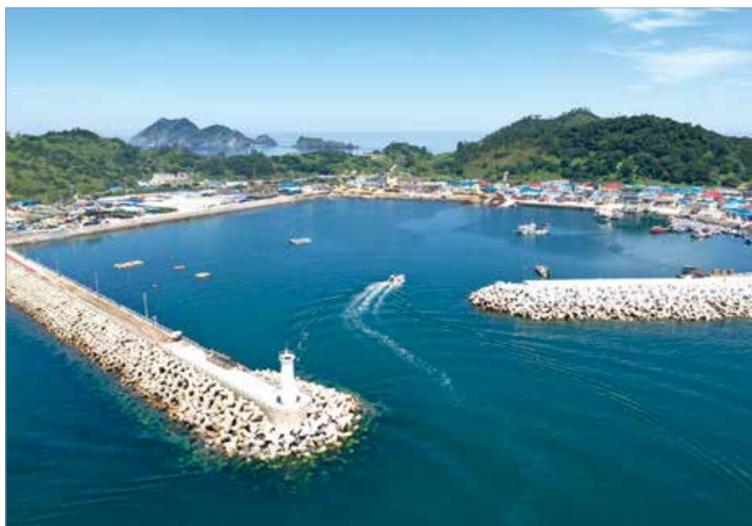


충남관광캐릭터 위디가디

변에 떠 있는 죽도, 부억도, 목개도, 정족도, 사자바위, 거북바위들이 반긴다. 섬 안으로 들어가면 소나무와 소사나무 숲이 아름다워 이름 붙여진 소솔길이 기다린다. 신장벌까지의 외길은 고즈넉하게 섬을 거닐기 좋다. 신장벌의 끝은 세상 나뭇에 모르는 ‘시크릿 비치’를 연상케한다.

올 여름, 충남의 섬으로 여행지를 정하면 충분하다.

/이거진 충남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본부장



외연도 전경.



삼시도 해수욕장(위쪽 사진), 장고도 조개작업.

‘비움의 미학’을 마음에 담아오는 여행

충남에서 충전해-!

⑤ 충남 한옥마을 스테이

여행의 목적이 휴식이라면, 한옥 스테이는 가장 안성맞춤의 여행이다. 모든 일상의 시름을 내려놓고 시간이 멈춘 듯, 무념무상의 휴식을 취하기에 한옥만큼 고요하고 아늑한 공간은 없다. 스트레스로 뜨거워진 머리와 경쟁으로 지친 몸을 온돌에 누이고 잠시라도 평정의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휴식이 된다. 충남에는 전통건축물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한옥마을이 여럿이다. 충남의 한옥마을 스테이를 통해 한옥이 주는 우리 고유의 맛을 흠뻑 느끼며 ‘비움의 미학’을 마음에 담아보자.

아 과거의 정취를 느끼게 한다. 16개 테이블의 야외 바베큐장과 오토캠핑장도 있다. 4개 코스의 한옥마을 돌레길은 공산성, 무령왕릉, 고마나루 등 백제의 숨결을 더듬어볼 수 있다. 무인자전거를 빌려 타고 고도의 곳곳을 유유히 돌아봐도 좋다. 백제 차 시음과 백제복식 등 전통문화체험과 공예공방 체험, 국궁 체험 등이 활력을 더해준다.

/숙박 문의 ☎041-881-28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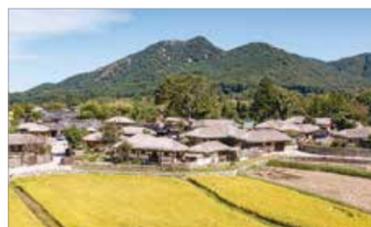


논산한옥마을

▶논산한옥마을=전통문화 체험과 한옥에서의 하룻밤을 경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 한옥시설은 넓은 대청마루를 무대로 펼쳐지는 문화체험존인 1촌, 전통 한옥의 맛을 그대로 지닌 한옥생활체험존인 2촌, 현대적 기술이 접목된 한옥생활체험존인 3촌으로 나뉜다. 1개부터 3개의 방으로 구성된 7개 객실이 운영되고 있다. 이용료가 비교적 저렴한 게 특징. 영화제, 음악제, 전시회 등 문화예술프로그램도 수시로 열린다. 한옥마을 바로 옆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둔암서원이 위치하고 있다. 내진검에 논산의 세계문화

유산 투어를 해보는 것도 좋다. 주변으로 탐정호와 출렁다리, 관촉사 은진미륵, 계백장군유적지 등 특색있는 관광지도 이어져 있다.

/숙박 문의 ☎041-435-7030



아산 외암민속마을

▶아산 외암민속마을=조선후기 상류층 가옥과 서민층 가옥 60여 채가 보존된, 살아있는 민속박물관. 총 5.3km에 달하는 돌담길을 따라 참판대, 병사대, 감찰대, 참봉대 등 태호가 지어준 옛 가옥을 둘러보는 재미가 이색적이다. 안채, 문간채, 사랑채 등 조선시대 살림가옥의 형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옛 마을 앞에는 조선시대 시장인 저갯거리가 조성되어 다양한 먹거리를 즐기며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감자 수확, 고추장 체험, 떡메치기, 전통 모내기, 벼 베기, 천연염색 등 20여 가지의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민박 체험은 4인실부터 20인실까지 26개가 운영되고 있고 초가집부터 기와집까지 다양하다.

/체험·민박 문의 ☎041-541-0848

/이용 스토리미디어 대표

더위 날리는 서산 여름 테마파크

도민이 소개하는 충남 구석구석

지루한 장마와 무더위로 모두가 지쳐 있는 요즘, 서산시 여름테마파크 개장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속에 남녀노소 모두가 왁자지껄 활기가 넘쳐났다.

주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었지만 간혹 나이드신 어르신도 눈에 띈다.

아이들은 워터슬레이, 풀장, 에어슬라이드, 유수풀장에서 즐겁게 물놀이, 어른들은 몽골텐트를 비롯한 그늘막에서 모처럼의 여유를 즐기며 아이들의 물놀이를 만족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서산시는 겨울 테마파크에 이어 각종 물놀이 시설을 갖춘 여름 테마파크를 8월25일 까지 운영한다.

성연면 왕정리에 위치한 여름 테마



서산시 여름테마파크를 즐기는 사람들.

파크는 완벽한 시설과 넓은 주차공간으로 찾는 이들로 하여금 다시 찾고 싶은 추억의 공간으로 기억 될 것이다.

이 외에 서산종합운동장 야외물놀이장도 8월25일까지 운영되며, 서산버드랜드에서 즐기는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에는 물놀이장을 비롯한 각종 체험프로그램으로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도민리포터 계룡산

충남도정신문 8월 도민참여 이벤트

충남도정신문 1008호, 1010호의 7번 <충남이면 충분해>에 소개된 관광지 7곳 중 1곳 또는 충남의 관광지 1곳을 방문해 인증샷과 방문 후기를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스타벅스 아이스아메리카노 쿠폰을 씁니다. 아래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하기

- 부여 공남지, 부소산성, 백제문화단지, 부여전통시장
- 금산 월영산출렁다리, 금산산림문화타운, 금강생태과학체험장
- 기타 충남도내 모든 관광지

▶기간 : 8월 1일~8월 31일

※ 9월 중 당첨자 개별 안내 혹은 지면 발표





충남의 종가

8) 청양 평택임씨 참의공파 종중



산천재 전경.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구한말~일제강점기 누대 걸쳐 국난에 맞서다

평택임씨 참의공파, 청양 정착

평택임씨 참의공파는 충정공 임언수의 후손으로 이들이 청양지역과 인연을 맺은 것은 임정수(林貞秀, 1514~1583)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임정수는 1546년 과거시험 소과에 합격하고 청양현감(청양군수)을 거쳐 형조좌랑(법무부 과장급)을 지냈던 인물이다. 청양현감을 역임할 당시 태안군수 최제운(崔霽雲)과 친하게 지내어 자신의 아들 임식(林植, 1539~1589)을 그의 딸과 결혼시켰다.

임식은 1564년 소과에 합격, 1572년 대과에 급제한 뒤 여러 관직을 거쳐 강계부사(평안북도 강계군수)를 역임하였는데, 얼마 후 모함을 받아 파직당하여 50세가 되던 1588년에 흥성 결성으로 낙향하였다. 그리고 부해정(浮海亭)이라는 정자를 짓고 은거하며 살다가 이듬해인 1589년 생애를 마쳤다.

임식은 첫째부인 해주최씨와의 사이에서 임득인과 임득의 2남을 두었다. 그 중 장남 임득인이 참의공파 파조이다. 차남은 정유재란 때 이몽학의 반란을 진압하여 청난공신에 녹훈된 임득의이다.

후손들은 흥성의 결성에서 가까운 청양군 화성면(조선시대 흥주목 소속)에 임식의 장사를 지냈고, 이를 계기로 청양에 정착하게 되었다.

종중의 재실이자 서당, 산천재

청양 화성면에 위치한 산천재는 평택임씨 참의공파의 재실로, 제수를 준비하는 안채와 학당으로 지어진 강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중회장 임길호씨가 언급하길 안채는 1800년대 초, 강당은 1920년대에 건립되었다고 한다. 현재 이곳은 시제와 종중회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시제는 매년 음력 10월 초 정일 10시 30분에 진행되며, 송과공 임식·참의공 임득인·동암공 임헌·해주최씨 최제운의 제사를 모시고 있다. 최제운은 임식의 장인으로 대를 이어갈 자손이 없어 사위가 장인의 제사를 모시게 되었다. 이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이러한 외손봉사는 조선중기 드문 형태였다.

종중회장 임길호씨에 의하면, 종친들은 자신을 집 제사는 간소화하는 추세



산천재에서 종중회장 임길호씨와 족보를 열람하고 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이나, 시제를 모시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루 전에 꼭 모여서 풍성하게 준비하며 자랑스러워한다고 한다.

산천재는 재실의 기능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서당으로도 활용되었다. 이미 1900년대부터 평택임씨 후손들과 인근 타성 아이들을 대상으로 강학을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덕명의숙’을 운영하였으며, 1960년대에 고등학생이었던 임동걸의

주도로 배움에 굶주린 청소년들을 위해 세운 무료 야간학교 ‘새마을학원’을 개원하였다. 이처럼 산천재는 평택임씨 참의공파의 재실이자 마을의 교육장소로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1년에 충청남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되었다.

임승주·한주 형제 등 애국지사 배출

평택임씨 참의공파 종중은 나라의 공



동암고택(와송정사). /한국유교문화진흥원

훈을 받은 애국지사 8명이나 배출된 집안이다. 흥주의병과 파리장서운동에 참여했던 임한주와 임승주,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을 했던 임경호와 임금호, 화성만세운동을 했던 임상덕, 임준호, 임한영, 임광호가 그들이다.

임승주(林承周, 1867~1937)는 1차·2차 흥주의병에 참여하였으며, 1차 흥주의병에서 17개 군에 통지서를 보내어 의병을 소집하는 중책을 맡았다. 광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김복한, 이설, 이상린, 홍건, 안병찬, 송병직과 함께 ‘홍주칠의사(洪州七義士)’라 불린다.

임한주(林翰周, 1871~1954)는 임승주의 동생으로 형과 함께 흥주의병에 활약하면서 당시 겪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홍양일기』를 저술하여 오늘날 흥주의병사 연구에 중요한 기록을 남겼으며, 1919년에 파리장서운동에 참여하였다. 1920년부터 덕명의숙(산천재)에서 후학을 양성하였다.

임경호(林敬鎬, 1888~1945)는 임승주의 아들로 1919년 파리평화회의에 보낼 독립탄원서(장서)를 발송하는 책임을 맡았으며, 조선물산장려회 이사·물산장려운동의 기관지 발행위원으로서 국권회복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다가 해방 직전에 옥사하였다.

임금호(林莢鎬, 1900~1964)는 20대에 학업을 중단하고 중국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찾아가 김구 아래서 임시정부 요원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임시정부에 재정난이 심각할 때 사촌동생인 임풍호의 도움을 받아 독립운동 자금 900만원을 지원하였고, 귀국한

후에도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한편, 평택임씨 참의공파 종중은 당시 청양 화성면 내 유력 가문이었었는데, 종중에서 운영한 학당인 덕명의숙이 마을 정체성에 영향을 끼쳐 흥주의병 이후 3·1운동, 파리장서운동 등 국내외 활동에도 마을 사람들이 참여했다. 이에 청양 물안마을에서는 8인의 평택임씨와 김용옥, 김만식, 안두중, 윤상진, 하래선 선생 등 같은 마을 출신 독립운동가 12분의 업적을 기리고 되새기며 구한말에서 일제 해방 직전까지 항일운동이 지속되어온 마을의 자부심으로 매년 2월에 태극기 게양식을 개최하고 있다.

전통 건축양식 고스란히 남아

청양 평택임씨 참의공파 종친들은 재실인 산천재를 중심으로 이웃한 마을 [화암리, 기덕리, 수정리]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 있다. 또한 100년이 넘는 고택 3채[임동일 고택·임영기 고택·임승팔 고택]가 서로 인접한 곳에 남아 있어 현재에도 볼 수 있다.

이중에서도 가장 이름난 고택은 임동일 고택으로 19세기 말에 송암 임용주가 지었다고 전해지며, 파조 임득인의 아들 임헌이 살던 집터에 새로 지어 올린 집이기에 역사적 가치가 있다. 임헌의 호를 따 안채에 ‘동암당(桐巖堂)’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으며 ‘동암고택’이라고도 불린다. 이곳의 또 다른 이름은 ‘와송정사’이다. 임용주가 집을 지을 때 연못을 조성하고 주변에 소나무를 심었는데, 옆으로 누운 듯 자라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임영기 고택과 임승팔 고택은 좌우로 나란히 위치하는데 임영기 고택은 1900년대 초 임찬주가 지었다고 전해지며, 아들 임풍호의 호가 ‘삼전’이라서 삼전고택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리고 임승팔 고택도 비슷한 시기에 임석주가 지었다고 전해지며, 임석주의 호가 ‘송운’이므로 역시 송운고택이라고도 한다. 두 건물은 전통적인 건축양식이 비교적 유지·관리가 잘 되어 있어 2009년에 충청남도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서홍석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유교문화연구부장



동암고택(와송정사).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주요인물 생몰년도

| 인물 | 특이사항, 활동 |
|---------------------|---------------------------------|
| 임식(林植, 1539~1589) | 예조정랑, 구성부사, 강계부사 등 역임 |
| 임득인(林得仁, 1556~1572) | 파조, 청난원종일등공신 |
| 임승주(林承周, 1867~1937) | 1차·2차 흥주의병, 파리장서운동 참여 |
| 임한주(林翰周, 1871~1954) | 1차·2차 흥주의병, 파리장서운동 참여 『홍양일기』 저술 |
| 임경호(林敬鎬, 1888~1945) | 파리장서운동, 옥중 순국 |
| 임금호(林莢鎬, 1900~1964) |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원 |
| 임상덕, 임준호, 임한영, 임광호 | 화성만세운동 참가 |



김미희 어쩌다 마주친 폰카 시



내 책상에는 노란 개구리와 파란 기차가 있습니다. 연필만 보이면 잡아채서 머리를 깎습니다. 개구리 울음이나 기차 경적이 울리면 연필들은 신음도 못 내고 맨들맨들 똑같이 개성 없는 헤어스타일이 됩니다. 잘린 머리카락들은 깻묵처럼 내려져 아랫방에 쌓입니다.

쓰는 이유

검은 가시를 낸 연필
뽀족 뽀족
흑심이 드러난다

또박또박
몽롱해질 때까지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을 다스린다



신진청년예술인 - 무용수 이선아



<그 날은> 안무 및 출연. 2013 크누아홀 ©옥상훈

▶작가노트

직접 농사를 짓고, 농부를 만나 묻는다. 자연에 순응하며 이어 온 전통 방식의 농사를 배우며, 삶과 조화로운 노동에 대해 질문한다. 오랜 시간 땅에서 만들어진 농부의 감각을, 무대(전시장)에 올려 놓는다. 관객은 농사짓는 소리를 들으며, 논과 밭에 쫓겨이 쌓인 농부의 시간(감각과 몸짓)을 상상한다. 논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있을 때 코 끝에 느껴지는 흙냄새와 호미를 들고 마른 땅을 부술 때의 감각, 폭 폭 빠지는 논에서 걷는 밭의 무게,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바람을 만날 것이다. 눈앞에서 춤을 추는 무용수는 없지만, 감각의 기록이 움직임의 심상으로 관객을 이끌어간다. 이것은 무용공연이다. 무용수는 농사 과정에서 수집한 소리를 듣고, 즉흥적으로 반응하여 움직인다. 몸의 반응, 섬세한 움직임은 영상으로 담겨 보여진다. 관객은, 농부의 감각이 소리로, 그 소리의 이미지가 움직임으로 확장하는 것을 경험한다.

▶공연 - 농사짓는 몸_듣는 산책

기간: 2024년 10월 25일~ 10월 29일.
시간: 11:00 ~ 19:00
*오프닝 리셉션 및 퍼포먼스: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저녁 6시
장소: 홍성군 흥동면 광금남로 699번길 8 공간 들



▶이선아 약력

- 2013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창작과 예술전문사 졸업
- 2024 충남문화관광재단 신진예술인지원사업 참여
- 2023 농사짓는 몸_듣는 산책 / 기획, 충남문화관광재단 농사짓는 몸/리서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2020 매봉/ 안무 및 발표, 월레움직임
- 2017 몸 생각하는 집 / 안무 및 발표, 집시리즈

소설가가 말하는 '직업의 의미'



사서들의 서재



소설가라는 이상한 직업/장강명/유히/2023

이 책의 저자 장강명은 본인을 월급 사실주의 소설가, 단행본 저술업자, 문단 차력사라고 소개하며, 본업은 소설이고 부업은 논픽션과 에세이를 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본래 이 에세이는 <월간 채널에스>에서 '장강명의 소설가라는 이상한 직

업' 칼럼으로 연재해 책으로 출간됐다. 작가 스스로가 돈벌이와 밥벌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쓰기 시작한 에세이란다. 돈하고 상관없이 뿌듯한 직업이라고 여기는 소설가의 삶을 기록하기 위해 작가는 본인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남의 일처럼 바라보며 기술한다.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소설가로서의 하루 일상을 돌아보고 별거 없는 루틴속에서 소설가만의 포인트를 짚어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상한 직업의 하루, 보람, 단점 등을 읽어봐야만 하는 독자는 누구일까? 일단은 예비 작가와 등단 신인일 것이다. 작가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애를 쓰며 간절함을 끌어안고 지내는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적이 조언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말하고 듣는 세계보다 읽고 쓰는 세계를 지향하며 책을 중심으로 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누구나 책을 써보자고 제안한 사람이 바로 장강명작가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소설가라는 직업에 헌신하고 있고, 현실할수록 더 좋아지는 직업이라고 당당히 고백하며 부지런히 글을 지어 먹고사는 이의 주장이니까 이보다 더 좋은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 요즘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로 출판계와 문학계도 급격히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을 쓰는 모두가 함께 잘 쓸 수 있도록 활자로 토닥이는 책이 아닐까싶다. 독자로서 이 책을 읽고나니 글을 쓰고 책을 출간하는 모든 이들이 잘 성장하고 지속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남았다. /김민지 사서(충남도서관 정보서비스과)

8월 문화행사

축제



제5회 섬의날섬, 좋다

기간: 2024-08-08 ~ 11
장소: 보령머드광장, 머드테마파크
시간: 14:00



장항 맥문동꽃 축제

기간: 2024-08-25 ~ 29
장소: 서천군 장항읍 장항산단로 34번길 122-16
문의: 041-950-4020

공연



오페라 <코스모스를 죽였다>

기간: 2024-08-10
장소: 천안예술의전당 소공연장
시간: 12:00
문의: 1566-0155



뮤지컬 <엄마까투리>

기간: 2024-08-10 ~ 11
장소: 천안성환문화회관 대공연장
시간: 11:00
문의: 041-521-3745



뮤지컬 <바다탐험대 옥토펙3>

기간: 2024-08-17 ~ 18
장소: 천안성환문화회관 대공연장
시간: 11:00
문의: 041-521-3745



<스위스 로잔 체임버 오케스트라>

기간: 2024-08-30
시간: 19:30
장소: 천안예술의전당 대공연장
문의: 1566-0155



정기연주회 <해피 투게더>

기간: 2024-08-22
시간: 19:30
장소: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
문의: 041-840-2204



뮤지컬 <인어공주>

기간: 2024-08-31
장소: 당진시 무수동2길 25-21
시간: 11:00
문의: 041-350-2911



최형배의 <오리지널 과학마술 콘서트-시즌1>

기간: 2024-08-15
장소: 아산 평생학습관(구관)
시간: 14:00
문의: 041-537-3903



매직쇼 <구구쟁의 매직쇼라구>

기간: 2024-08-31
장소: 아산 평생학습관(구관)
시간: 11:00
문의: 041-537-3903



국민연금

100문 100답

직원이 새로 입사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 하나요?

- 1일 입사자는 해당 월부터, 1일이 아닌 날짜 입사자는 다음 달부터 납부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는 1일 입사가 아니더라도 해당 월부터 납부 가능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납부하면 됩니다. (입사일이 1일이거나 직원이 입사 월부터 납부를 원하는 경우는 해당 월부터 납부)

직원이 새로 입사하게 되면 입사하는 날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사일이 속한 달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1일자가 아닌 월 중에 입사한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납부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매예방 두뇌훈련 퀴즈

아래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 실버 베이커리 | | | |
|---------|-----|---|--------|
| 단팥빵 | (㉠) | 3 | 3,000 |
| 식빵 | | 2 | 6,000 |
| 딸기잼 | | 1 | 5,000 |
| 아이스크림 | | 3 | (㉡) |
| ----- | | | |
| 케이크 | | 1 | 20,000 |
| 우유 | | 1 | 2,500 |
| 샌드위치 | | 1 | 7,500 |
| 카스테라 | (㉢) | 2 | 5,000 |
| ----- | | | |
| 소계 | | | 53,500 |

- (㉠) 안에 들어갈 금액은 얼마일까요? ()
- (㉡) 안에 들어갈 금액은 얼마일까요? ()
- (㉢) 안에 들어갈 금액은 얼마일까요? ()

출처 / 한국치매예방협회 위드실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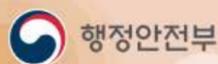
| 금액 | 상품 |
|--------|--|
| 53,500 | 단팥빵 3개, 식빵 2개, 딸기잼 1개, 아이스크림 3개, 케이크 1개, 우유 1개, 샌드위치 1개, 카스테라 2개 |

정답: 53,500 원

충남도립

신문 무료 구독신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 041-635-2035

폭염 대비 이렇게 행동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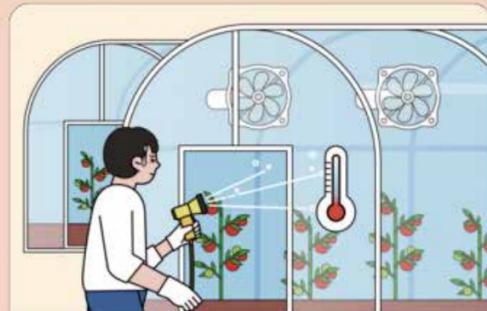
가장 더운 오후 2시~오후 5시에는 야외활동이나 작업을 되도록 하지 않기



냉방기기 사용 시, 실내외 온도차를 5°C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하기 ※ 적정 실내 냉방온도: 26~28°C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의 가벼운 증세가 있으면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장소를 이용



축사, 비닐하우스 등은 환기하거나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추기

헬리코박터균 꼭 치료해야할까?

공공의료원 칼럼

건강검진 또는 속쓰림 증상으로 위 내시경을 하고 나면 헬리코박터균 치료를 받으라는 결과지를 받는 경우가 있다. 다시 병원을 찾기도 번거로운데 꼭 치료를 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elicobacter pylori)는 위 점막층과 점액 사이에 서식하는 위장 내 기생하는 세균으로, 사람에게 가장 흔한 만성 세균 감염을 유발한다. 유병률이 전 세계적으로 15~80%까지 다양하게 보고 있으며, 위암 발생률이 높은 한국, 일본, 중국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50~60%로 매우 높은 편이다. 실제로 검진 위 내시경을 하다 보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만성 위염의 모습을 너무나 흔하게 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위축성

위염, 위벽이 울퉁불퉁한 장상피화생, 적색 반점으로 덮힌 점막, 위의 가장 흔한 양성 용종인 과형성용종, 황백색 반점으로 보이는 황색종의 소견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상기 소견이 보이더라도 모든 검진자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 헬리코박터균 검사가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받는 기준(2022년 9월 시행)은 내시경에서 위 및 십이지장 소화성궤양 또는 림프종이 관찰되거나, 조기위암시술력,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환자가 해당된다. 그리고 위암가족력(부모형제)이 있으면 50% 본인부담, 이외의 경우는 90% 본인부담으로 검사할 수 있다. 1994년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암연구소에서 헬리코박터균을 위암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하였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은 위 및 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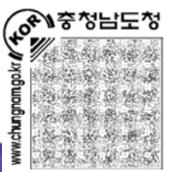
이지장 궤양을 일으킬 수 있으며 만성 위염,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으로의 변화를 순차적으로 일으키고, 더 나아가 위 선암, 위 림프종까지 유발하는 병태생리를 가지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헬리코박터균과 위암과의 깊은 연관성을 증명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2023년 5월 2일 미국 소화기내과 학회지에 대규모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미국 카이저 퍼머넌트 노선 캘리포니아(KPNC) Dan Li 박사 연구팀이 1997~2015년 사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은 71만 667명을 대상으로 추적 관찰한 결과, 일반인과 비교해 세균 치료 10년 후에는 위선암 발생 위험이 49%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연관성이 크게 있음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위암 뿐만 아니라 당뇨, 심혈관질환, 퇴행성 신경질환과 같은

다양한 질병들과 헬리코박터균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많은 연구가 보고 되고 있다.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모든 보균자에 대해 세균 치료를 시행할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논쟁 중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위암 발생률을 보면 2017년 국내 암등록 통계 자료에서 인구 10만명당 32명으로 국내 암 중에 두 번째로 높았으며, 전 세계에서 위암 발생률 1위로 알려져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이전보다 점차적으로 균 검사 및 세균 치료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헬리코박터균 세균 요법은 2종류의 항생제를 포함한 3제 요법으로 7일 또는 14일간 투약하는 것이 보편적인 1차 치료로 사용되며, 세균율이 64~78% 수준으로 항생제 내성 증가로 과거에 비해 세균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대체되는 1차 치료로서 3종류 항생제를 포함하여 10일간 투약하는 동시요법은 세균율 80%대로 유의미한 세균율을 보이고 있어 추천되나 오심 등의 부작용 빈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 치료가 끝난 후에는 위내시경 재검을 통해 확인하거나, 간단히 공기를 불어서 검사하는 요소호기검사 등 편리한 방법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 점차 적극적으로 균에 대해 검사 및 치료하는 추세인 만큼, 만성 소화불량, 속쓰림 등의 증상이 있다면 검진 시 헬리코박터균 가능성에 대해 의사와 상의해보시기를 바란다.



홍진호
서산의료원 가정의학과장



무령왕을 日本에서 낳은 왕비의 미스터리

충남여성열전

④ 무령왕의 어머니

우리 역사에 백제 무령왕의 탄생과 같은 미스터리가 없다. 캐도 캐도 끝이 없다. 우리 삼국사기와 일본의 서기, 그리고 중국 사서가 모두 다르다. 진정 그의 아버지는 개로왕일까? 왜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는 도중, 섬에서 탄생할 정도로 복잡한 스캔들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왜 나이 40이 되어서야 백제로 건너와 왕위에 올랐을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령왕의 어머니이며 개로왕의 왕비인 한 여인에게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는 끊임없이 백제를 괴롭혔다. 5세기 이후 고구려의 남진 정책이 강화되면서 백제는 한강 유역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다. 그러자 개로왕은 동생 곤지로 하여금 일본에 가서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라는 명을 내린다. 곤지는 형님이며 왕인 개로왕의 뜻을 받아들인다.



삽화/맹주석

그러나 조건이 있다. 형수이면서 미모가 아름다운 왕비를 일본에 동행해 달라는 것이다. 왕은 동생 곤지에게 “허락하지만 왕비는 지금 임신중이어서 곧 출산을 하게 되는 데 바다를 건너는 것은 위험하다”고 거절한다. 그래도 곤지가 고집을 꺾지않는 가운데 왕비가 기꺼이 동행하겠다고 나선다. 이에 개로왕은 왕비와 함께 곤지를 일본에 파견한다. 여기에서 학자들 간에 추리가 나온다. 왕비는 시동생인 곤지와 밀애에 빠졌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 왕비가 임신한 아기도 개로왕이 아니라 동생 곤지의 아이일 수 있다. 그래서 왕은 이들의 밀애를 알고는 일본 군사지원을 핑계로 추방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 여기서 또 미스터리가 생긴다. 왕은 이들을 떠나 보내면서 아기를 낳으면 꼭 돌려 달라고 한 것이다. 자기 아이가 아니라면 왜 그 아이를 돌려 달라고 했을까?

어쨌든 곤지와 왕비가 일본으로 가는 도중 규슈 근처에 이르렀을 때 왕비는 심한 산기를 느껴 가카라시마에 정박을 하게 된다. 그리고 마땅한 동굴을 찾아 아기를 낳았으니 바로 백제역사에 가장 이름을 날린 무령왕이고 1971년 공주 송산리에서 왕릉이 온전한 채로 발굴돼 세계적 화제가 됐다. 지금도 가카라시마 섬에는 무령왕이 태어났다는 동굴이 잘 보존돼 있고 아기를 씻었다는 우물도 있다. 이 지역 일본 사람들은 무령왕이 낳은 곳이라 하여 매우 신성시하고 무령왕을 섬에서 낳다 하여 ‘사마왕’이라 하는데 무령왕릉에서 발굴된 지석에도 ‘영동대장군 백제사마왕’이라고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곳 일본인들은 무령왕이 탄생했다는 음력 6월 1일에는 무령왕 탄생 축제를 열고 제사도 지낸다.

공주시에서도 이날 많은 사람들을 보내 참석하게 하는 데 일본 주민들과 학생들이 부두에 도열하여 환영하는 모습은 인상적이다. 그리고 이곳 일본인들은 왕비와 함께 일본에 왔던 곤지가 세상을 떠난 날을 기려 예를 행하는 데 그를 신으로까지 모신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미스터리가 생긴다. 무령왕은 백제 고국으로 돌아가 훌륭한 왕 역할을 했는데 곤지는 왜 백제로 돌아가지 않고 일본에서 일생을 마쳤는가? 그리고 무령왕(사마왕)을 낳은 왕비는 어찌 되었는가?

무령왕릉 발굴처럼 그런 놀라운 발굴이 또 일어난다면 이 모든 미스터리가 풀릴수도 있을텐데...

변평섭
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일상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스마트폰 보안수칙

- 스마트폰 운영체제·백신 최신으로 업데이트 하기
- 공식 앱스토어가 아닌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하지 않기
-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는 앱은 설치하지 않기
- 스마트폰 보안잠금 설정하기(지문·패턴 등)
- 스마트폰 와이파이 연결 시 제공자 불분명한 공유기 이용하지 않기
- 문자·SNS에 포함된 URL 클릭하지 않기
- 루팅·탈옥 등 스마트폰 플랫폼 임의변경하지 않기
- 스마트폰에 중요정보 저장하지 않기 (신분증, 보안카드 등)
- 스마트폰 교체시 데이터 완전삭제 혹은 초기화 적용
- SNS-이메일 등 로그인시 2단계 인증 설정하기

해킹메일 대응 수칙

- 의심가는 메일 열람 X
- 메일주소 잘 확인
- 의심 첨부파일 열람 X

충청남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
041-635-3746
cncert@korea.kr

충남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농사랑

농사랑 8월 기획전

충남 청양군 농특산물 모여라!

청양군 특산물 전체 20% 할인

농사랑 청양군의 날

칠갑마루를 느껴보자!
청양군 특산물 할인 대잔치

기간 8월 1일 ~ 예산소진시
혜택 특산물 전체 20%할인

농사랑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농사랑'을 검색해보세요!
네이버, 카카오톡으로 간편로그인 가능!

www.nongsarang.co.kr

일자리 정보

※문의 - (재)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 041-404-1421

| 지역 | 사업장 | 직종 | 인원 | 전화 | 급여 | 지역 | 사업장 | 직종 | 인원 | 전화 | 급여 |
|----|---------------|---------------------|----|---------------|-----------|----|-------------|-----------------|----|---------------|-----------|
| 천안 | (주)나무그늘 | 제조 단순 종사원 | 2 | 070-4333-1620 | 월 290만원 | 논산 | (주)에스비패널 | 금속가공 기계 조작원 | 5 | 070-4333-7302 | 연 4,000만원 |
| 천안 | (주)프로미스 | 플라스틱제품 조립원 및 검사원 | 5 | 041-417-2223 | 월 320만원 | 논산 | (주)한테크 | 유리제품 생산기계조작원 | 1 | 010-3310-7120 | 연 3,000만원 |
| 천안 | (주)대진글라스 | 지게차 운전원 | 1 | 010-6774-9982 | 연 3,800만원 | 보령 | 금정종합건설(주) | 토목시공 기술자 | 2 | 041-935-9910 | 연 3,500만원 |
| 천안 | (주)다우테크놀로지 | 자동차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1 | 041-553-3692 | 연 5,000만원 | 보령 | 금화식품(주)보령공장 | 지게차 운전원 | 1 | 041-931-9646 | 연 3,300만원 |
| 아산 | 와이엠씨(주) | 머시닝센터조작원 | 5 | 041-538-5391 | 연 3,200만원 | 보령 | (주)동서에코글로벌 | 제조 단순 종사원 | 2 | 041-931-0345 | 월 220만원 |
| 아산 | (주)케이솔루션 | 총무 및 일반 사무원 | 2 | 041-543-9194 | 연 3,500만원 | 보령 | (주)해돌박이 | 식품 분야 단순 종사원 | 1 | 041-931-3611 | 월 250만원 |
| 아산 | (주)성우산업 | 생산·품질 사무원 | 1 | 041-532-5970 | 연 5,000만원 | 계룡 | (주)이루모스 | 제조 단순 종사원 | 6 | 042-551-3200 | 월 220만원 |
| 아산 | 삼성정공(주)제2공장 | CNC 선반 조작원 | 2 | 070-5031-6339 | 연 4,000만원 | 계룡 | (주)이렘스틸 | 기계·금속 분야 단순 종사원 | 5 | 042-840-8228 | 연 3,000만원 |
| 당진 | (주)삼주당진공장 |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 2 | 041-970-6305 | 연 4000만원 | 홍성 | (주)한소울 | 식품 분야 단순 종사원 | 5 | 041-642-7740 | 월 230만원 |
| 당진 | 대일물류(주) | 경리 사무원(운수) | 1 | 041-352-5527 | 연 2,600만원 | 홍성 | 조양레미콘 | 생산·품질 사무원 | 1 | 041-631-2500 | 연 3,000만원 |
| 당진 | (주)이엔이텍 | 기계·금속 제도사 | 1 | 041-355-8211 | 월 300만원 | 예산 | (주)대광주철 | 회계 사무원 | 1 | 041-337-7250 | 월 250만원 |
| 당진 | (주)코시노인터네셔널 | 기계·금속 분야 단순 종사원 | 4 | 041-904-3800 | 월 250만원 | 예산 | (주)유기산업 | 제조 단순 종사원 | 4 | 010-2596-2462 | 연 3,000만원 |
| 서산 | (주)케이엠테크 | 자동차 부품 조립·검사원 | 5 | 041-666-0277 | 월 350만원 | 태안 | 원진수산업어조합법인 | 배관 보조원 | 1 | 041-663-0151 | 연 3,240만원 |
| 서산 | 피티에스(주) | 하역·적재 종사원 | 1 | 041-668-8872 | 연 4,200만원 | 태안 | 성지이앤씨프 | 하수·폐수 처리장치 조작원 | 1 | 041-668-1071 | 연 3,600만원 |
| 서산 | 푸른돌영농조합법인 | 배송·납품 운전원 | 1 | 010-4412-7514 | 월 300만원 | 서천 | (주)해담솔 | 웹 디자이너 | 1 | 041-951-8789 | 월 220만원 |
| 서산 | 농업회사법인(주)이든밥상 | 식품 분야 단순 종사원 | 2 | 041-666-1066 | 월 210만원 | 서천 | 계동산업 |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 2 | 041-953-6624 | 월 255만원 |
| 공주 | 삼정가스화학(주) | 석유·천연가스 제조 제어장치 조작원 | 1 | 041-852-0966 | 연 3,200만원 | 부여 | (주)유데미이앤씨 | 경리 사무원(건설) | 1 | 041-834-2958 | 월 240만원 |
| 공주 | (주)제이에스이앤지 | 전자제품 제조기계 설치·정비원 | 1 | 041-854-4240 | 연 3,000만원 | 부여 | (주)대명철강 | 창고 관리원 | 4 | 041-837-6470 | 월 300만원 |
| 공주 | (주)휴먼바이오 | 재무 사무원 | 1 | 070-4256-4883 | 연 3,200만원 | 금산 | 에스디(주) | 금형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2 | 041-752-6864 | 연 4,000만원 |
| 공주 | 국립공주대학교 | 기타 사무원 | 1 | 041-850-8846 | 연 2,915만원 | 금산 | (주)금산물 | 생산·품질 사무원 | 2 | 041-753-0222 | 연 3,500만원 |
| 논산 | 유정농업회사법인(주) | 제조 단순 종사원 | 1 | 041-734-7232 | 월 240만원 | 청양 | (주)삼화그린텍 |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 1 | 041-942-5030 | 연 3,000만원 |
| 논산 | (주)경 | 총무 및 일반 사무원 | 1 | 041-734-6655 | 월 260만원 | 청양 | 의료법인가온의료재단 | 기타 보건·의료 종사원 | 1 | 041-944-1277 | 연 3,000만원 |

온실속에서 영그는 꿈... “국민 먹거리 책임진다”

충남 청년농부가 간다

부여 드리미팜 김성체 대표

‘식’ 책임지는 생명 산업...기본에 충실해야
“꾸준한 기부로 더불어 사는 삶 이루고 싶어”

“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자란다는 말이 있다. 작물을 기를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올해 4년 차 농부인 드리미팜 김성체 대표(36)는 “농사꾼들은 해가 뜨기 전에 출근해 별을 보며 퇴근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힘든 직업인데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자동화시설이 알아서 키워 줄 거라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으면 결국 작물의 상태는 나빠진다”며 기본에 충실한 농업에 대해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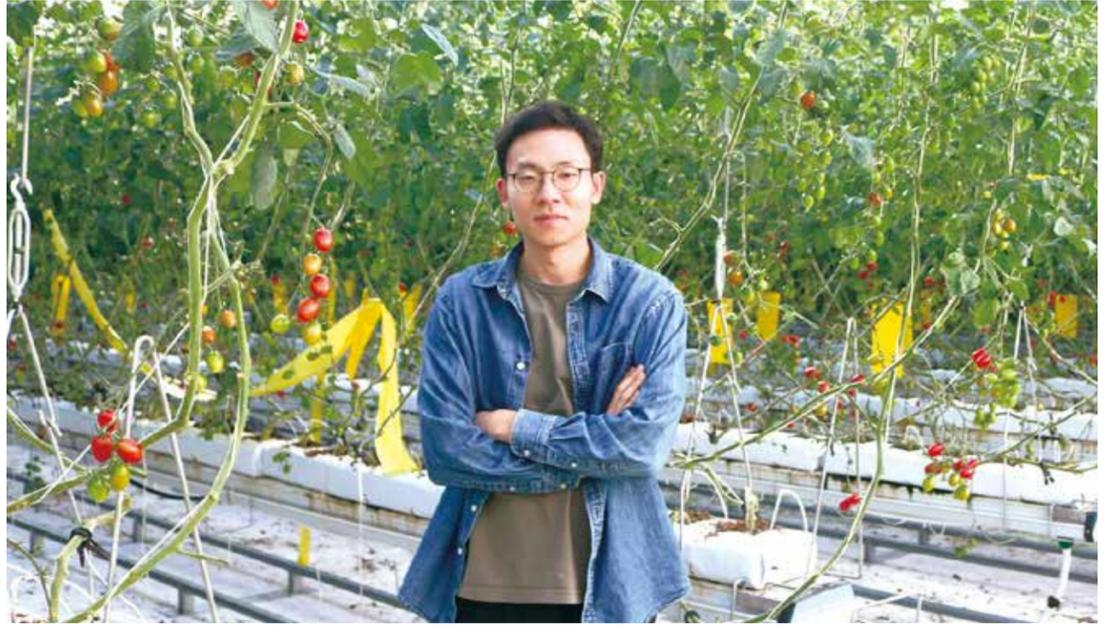
김 대표는 서울대학교 원예생명공학과를 졸업 후 연구원으로 일하던, 이른바 ‘수재’다. 그런 그가 연구지도 없는

부여에 정착해 농부의 삶을 사는 이유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김 대표는 “현재 농업만큼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식’을 책임지는 원초적인 생명산업으로서 일신의 영달이 아닌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여군 부여읍 송상로 25-14에 위치한 2000평 규모의 스마트팜에서 그는 평당 60kg의 대추방울토마토를 생산, 도매시장을 비롯해 스마트스토어, 쿠팡, 농협몰 등 10개 이상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한다. 지난해 연 매출 6억 중 3500만 원을 지역사회에 기부한 김 대표는 “앞으로도 꾸준한 기부와 봉사활동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삶, 특정 소수만이 아닌 다수가 행복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갈 수 있는 사회를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농업을 시작한 이후 가장 어려웠던 순간으로 ‘준비 과정’을



부여 드리미팜 김성체 대표.

꼽으며 “농업은 다른 분야와 달리 부모의 가업을 잇는 승계농이 대부분이라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다. 아무런 연고와 기반 없이 혼자 귀농해 토지, 자금, 하우스 신축 등 모든 것을 처음부터 헤쳐 나가야 했다”고 설명했다.

농장 운영, 수익 등이 안정권에 접어든 현재는 3년 이내 하우스가 위치한 부지 북쪽에 같은 크기의 하우스를 지어 사업 규모를 확장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운 좋게도 처음부터 바로 옆에 확장할 수 있는 부지를 구할 수 있었다. 2배 이상의 매출 증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스마트팜 운영 tip으로는 “온실마다 환경 관리법이 다르다. 다른 농가를 무작정 따라 하지 않고 자기 온실에 맞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판매 전략으로 “물건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 품질이 높으면 어느 판로를 통해서든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좋은 품질을 기본으로 판로를 다각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대표는 농기계정비기능사, 지체차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유기농업기능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드론) 등 농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도 다수 취득했다. 그는 “현재의 매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끊임 없이 배우고 연구하며 실수와 시행착오를 줄이려 한다. 나중에는 지도자로서 후진 양성에도 힘쓰고 싶다”고 밝혔다.

앞으로 농업에 도전할 후배들에게는 “농업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확신과 그에 따른 준비가 되었을 때 시작해야 한다. 언론에서는 극소수의 성공 사례를 주로 소개하지 실패 사례는 잘 소개하지 않는다. 쉬울 거라는 막연한 착각에 선불리 시작하지 않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이해트 deun127@korea.kr



태안 이현범 교육공무원, 조혈모세포 기증

“지인 자녀 혈액암으로 세상 떠난게 기증 서약 계기”

태안교육지원청 행정과 총무팀 이현범(42·사진) 주무관이 7월 24일 서울한 대학병원에서 다섯 시간에 걸친 시술로 혈액질환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했다.

조혈모세포란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등 모든 혈액세포를 생산하는 ‘모세포’ (어머니 세포)를 뜻하며, 건강한 사람의 혈액에는 이 세포가 약 1% 정도 존재한다. 조혈모세포에 이상이 생기면 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 혈액암과 같은 심각한 혈액질환이 발생해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아야 완치가 가능하다.



이 주무관은 지인의 자녀가 혈액암으로 고통받다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2015년 조혈모세포 기증에 서약했다.

이후 9년 만인 올해, 병원으로부터

‘유전자 형질이 일치하는 환자’를 찾았으니 조혈모세포를 기증하겠느냐는 연락을 받았다. 조혈모세포를 이식받기 위해서는 조직적합성 항원 유전자 형질이 유전자가 일치해야 하며, 일치할 확률은 2만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이 주무관은 환자의 애타는 마음을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기증을 결정했다.

이 주무관은 장기기증법에 따라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기증받은 환자가 ‘60대 남성’이란 것만 알뿐 정확한 신원을 알수 없다.

이 주무관은 “제 조혈모세포를 이식 받은 환자분이 무사히 회복해 가정과 행복을 되찾기를 바란다. 생명을 위한 일이니만큼 더 많은 사람이 조혈모세포 기증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콘티비충남방송 오현덕 기자



논산중 사제동행 ‘041밴드’ 첫 공연 성료

청소년극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에 멋진 공연 선보여

논산중학교는 7월 30일 논산시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 극장에서 학교자율 동아리 ‘041밴드’의 사제동행 첫 공연을 200여명의 학생, 학부모, 논산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었다.(사진)

무대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무한한 재능과 끼를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내보이고 가슴 안의 뜨거운 열정을 쏟아내며 관중들과 함께 무대위를 식혔다.

‘041밴드’는 학기초 동아리원들과

지도교사의 요청으로 학교의 4층 작은 창고를 개조하여 밴드실을 조성한 뒤 틈나는 대로 학생들이 좁은 밴드실에 모여 함께 연습하며 실력을 쌓아갔다. 선후배간의 지도와 음악을 좋아하는 장태환, 박건희 두 과학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꾸준히 연습했으며, 무대에 서고 싶다는 학생들의 열망이 첫 공연으로 이어졌다.

이우열 교장은 “오늘의 무대는 학생 주도성의 발현이 가져온 놀라운 결과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꿈과 열정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늘외신문 권현철 기자

주황색 과육에서 달콤한 멜론 과즙이 ‘팡팡’

당진 대호지농협 칸탈로프 멜론 공선출하회

대호지농협 칸탈로프 멜론 공선출하회(회장 송하동)가 칸탈로프 멜론 출하에 본격 나섰다. (사진)

세로줄 무늬가 더해진 칸탈로프 멜론. 멜론을 반으로 잘라보면 안쪽에는 오렌지색 과육이 드러난다. 과육을 한 입 베어 물면 은은한 달콤한 향이 코끝



을 자극하고,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에 달콤한 풍미가 입안 가득 퍼져나간다. 대호지농협(조합장 남기찬)에서는 2017년 18개 농가가 참여해 ‘칸탈로프

멜론 공선출하회’를 구성하고 칸탈로프 멜론 재배를 시작했다. 7년이 지난 올해 칸탈로프 멜론 농사를 짓는 농가는 10여 농가로 다소 줄었다. 공선출하회 측은 “멜론 나무 관리가 어렵고 크고 작은 잔일로 손이 많이 가 농사짓기가 까다롭다”고 말했다. 칸탈로프 멜론은 빠르면 6월 말, 대개 7월 초부터 출하를 시작한다. 구입 문의 : 대호지농협 경제사업장(☎041-353-4189) 또는 개별 농가. /당진시대 김경미 기자

충남도청

신문 무료 구독신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 041-635-2035

폭염에 대비해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자

내포칼럼



이 기 영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기상청에 따르면 2023년이 우리나라 평균기온은 섭씨 13.7도로 전국 기상 관측망이 정비된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해로 기록되었다. 기존 가장 더운 2016년보다 0.3도 높았고, 1991~2020년 평균과 비교하면 1.2도 높았다. 폭염일수는 14.2일, 열대야일수는 8.2일로 평균치와 비교해 각각 3.2일과 1.6일 많았다. 충청남도는 최근 3년간 폭염일수가 2021년 11.8일, 2022년 10.6일, 2023년 14.2일로 평균 열흘 이상 지속되었고 지난 3년간 도내 온열질환자 수는 2021년 83명(전국 1376명), 2022년 135명(전국 1564명), 2023년 205명(전국 2818명)을 기록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내 온열질환 사망자 수도 2021년 2명(전국 20명), 2022년 1명(전국 9명), 2023년 8명(전국 32명)에 달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은 따뜻한 남풍류 유입 가능성이 높아 평년보다 덥고 북서태평양 아열대고기압의 서쪽 확장으로 습한 수증기 유입이 강화돼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해와 접해 있는 충청남도에서 해수면 온도가 미치는 영향도 크다. 2023년 해수면 온도도 역사상 손에 꼽힐 만큼 높았다. 2023년 해수면온도는 17.5도로 최근 10년 평균인 17.1도와 비교하면 0.4도가 높았다. 또 강수량은 역대 3번째로 높은 수

치를 기록했는데 전국 강수량은 1746.0mm로 평년의 1.3배를 기록했다. 장마철을 포함한 5~7월에 강수량이 많았으며 12월에는 평년보다 4배 가까이 많은 102.8mm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반면 2월과 10월에는 20mm에도 못 미치는 강수량을 나타냈다. 2023년 8월에 우리나라에 영향



올 여름 한반도 평년보다 덥고 많은 비 예보
중부지역인 충남도는 여름철 폭염 발생 우려 커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특히 주의...실내 머물러야

을 준 제6호 태풍 ‘카눈’은 관측 이래 처음으로 한반도를 남북으로 관통한 태풍으로 기록됐다.

이러한 추이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앞으로 더 빈번하고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는 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후 가장 높았던 해이기도 했다.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감시기구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

(C3S)’는 2023년 전 세계 평균기온 역시 14.98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직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온실가스 발생 저감,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 탄소 흡수량을 증가시키는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구 평균기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하천지역이나 농촌 지역은 도시보다 더 높은 습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대도시에서는 인공구조물의 열 흡수, 교통수단과 에어컨 등 인간활동으로 인한 열의 발생, 녹지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한 열섬현상으로 기온이 더 높을 수 있다.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서 열사병과 탈수 증상에 대비하기 위해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하며 특히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어린이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폭염 기간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여 탈수를 예방한다. 물 또는 전해질 보충 음료를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폭염이 심한 날씨는 가능한 실내에 머무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사용하여 실내를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으나, 만약 에어컨 등을 이용하기 어려우면 천에 물을 적셔서 계속 체온을 낮추는 것이 효과적이다. 낮 시간대의 직사광선을 피하고, 야외 활동을 최대한 줄인다. 만약 야외에 있어야 할 경우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여 피부와 눈을 보호한다. 통풍이 잘 되는 밝은 색의 가벼운 옷을 입는 것이 좋으며, 얇은 소재의 의류를 선택하여 체온 조절을 돕는다. 뜨거운 차량 안에 어린 아이나 반려동물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런 기후위기 시대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폭염에 대비하여야 한다.

충청남도는 한국의 중부 지역에 위치하여, 여름철에는 폭염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이다. 특히 7월과 8월에는 폭염이 자주 발생하며,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날이 많다. 충청남도 내에서도 지역마다 폭염의 정도가

농부의 마음

농부일기

아침 일찍 일어나 콩밭에 가보았다. 나흘 전에 파종한 콩이 싹트고 있었다. 하지만 싹튼 콩의 대부분이 파헤쳐지고 잘려나갔다. 누가 그랬을까?

다름 아닌 비둘기 등 날짐승들이 잘라 먹고 파헤친 것이다. 지난해 파종 때도 그래서 재파종을 한 것인데.

옛 어른들의 말에 의하면 곡식을 파종할 때는 한 구덩이에 최소한 3알의 곡식을 파종하여 한 알은 날짐승이 먹고 한 알은 땅 짐승이 먹으며 한 알은 자라서 사람이 먹도록 풀매고 가꾸어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야 한다고 했다.

나는 한 구덩이에 네 알에서 다섯 알의 콩을 심는다. 그런데 날짐승들이 자기들의 똥만 챙기면 될 것을 배가 부르데도 파헤치고 자르고 하여 온통 빈 밭을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날짐승들이 못 오도록 허수아비를 만들어 세우는가 하면 막대나 비료 포대를 세워놓는다든지 반짝이는 은박지 줄을 쳐 놓기도 하며 발명가들이 만들었다는 각종 기구나 장비를 사서 설치해 놓는다. 그런데도 짐승들은 처음에만 속아서 망설이다가 점점 무섭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때 지어 날아와 농민들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한다.

영어 속담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 먼저 잡는다는 말이 있다지만, 이놈의 새들은 너무 부지런하여 배부른 것을 지나 이제 과소비에다가 탕진까지 하면서 농사를 망치게 하고 농민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정말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 잘 살면 된다고 온갖 수작을 부리는 경우가 있듯이 이놈들은 모두가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 옛말에 세상에 널리 흩어져 있는 농부들이 거두지 못하거나 흘린 곡식을 모두 모아놓으니 온갖 새들과 쥐, 들짐승들이 먹이를 차지하려고 아수라장을 만들어버려 주문을 외워 세상 곳곳에 골고루 뿌려 모든 짐승들이 제자리로 돌아 가도록 하였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다.

농민들은 들에서 일을 할 때에도 점심이나 새참이 나오면 사람이 먹기 전에 짐승들이여 너희들도 같이 먹고 살자고 ‘고수레’ 하면서 울해도 풍년들어 같이 먹고 잘 살자며 한술씩 떠서 들에 던져 놓는 것이 농부들의 마음이었던건만 요즘의 짐승들은 자기 똥이나 먹지 웬 심술로 모두 파헤치는지 알수 없다.

이번에는 나도 이놈들에게 지지 아니하겠다고 콩 묘판을 만들어 짐승들이 먹지 못하도록 차광막을 덮어 놓고는 어느 정도 자란 뒤에 모종을 하기로 하였다. 물론 콩이 자라서 콩 꼬투리가 어느 정도 익으면 또 덩비겠지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멀리서 삐죽삐죽 소리가 들린다. 마치 “삐죽 삐죽 계집 죽고 자식 죽고 삐죽 삐죽” 하는 소리로 들리는 것만 같

다. 아마도 이 날짐승들이 살아가는데도 우리네 농부가 살아가는 것처럼 고단하기는 마찬가지인가 보다.

김 태 권
전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장



삼하/맹주식

“비벼 먹어야 제맛...장아찌로도”

식물이야기

비비추

비비추는 백합목 백합과의 외떡잎식물인 여러해살이풀로 한국(남부, 중부산지) 일본에 주로 분포하며 재배 채소처럼 연하고 매끄러우면서도 감칠맛이 나는 산나물 같지 않은 산나물이다.

산나물의 쓴맛이나 떫은 맛 역센 섬유질 등의 특성이 없다.

잎이 모두 뿌리에서 돌아 비스듬히 퍼지며 난상 심장형 또는 타원형 달걀 모양이고 진녹색이며 꽃은 7~8월에 피고 꽃대는 30~40cm로서 길이 4cm의 연한 자주색 꽃이 한쪽으로 치우쳐 총상으로 달린다.

화관은 끝이 6개로 갈라져서 갈래 조각이 약간 뒤로 젖혀지고 6개의 수술과 1개의 암술이 길게 꽃 밖으로 나온다.

열매는 삭과로 긴 타원형이며 종자는 검은색으로서 가장자리에 날개가 있다. 연한 순을 식용으로 하며 관상용으로 심는다.

비비추는 원예종으로 다양한 품종이 개발되어 정원 식물로도 많이 심는다. 비벼 먹어야 제맛이 난다고 하여 비비추라 한다고 하며 비비면 거품이 나면서 독성이 빠지고 부드러워지며 잎을 데쳐서 찜 찜 먹기도 하고 국을 끓이거나 장아찌를 담그고 나물로 먹기도 한다.

약간 습한 그늘에서 기르는 것이 좋으며 강한 광선은 잎끝이 탄다.

봄, 가을에 포기나누기로 번식시키거나 가을에 씨를 받아 바로 뿌리거나 이듬해 봄에 뿌린다.



▶꽃말 - 신비한 사랑, 좋은 소식, 하늘이 내린 인연
▶개화시기 - 7-8월
▶과명 - 백합과
▶분포지역 - 한국, 일본

비비추와 옥잠화는 혼돈하는 경우가 많은데 옥잠화도 백합과의 다년생 초본으로 중국에서 들어온 귀화식물로 8~9월경에 꽃을 피우며 꽃봉오리가 옥비녀 모양처럼 생겼다해서 옥잠화라 부르며 옥비녀꽃, 비녀비비추, 주걱비비추, 백학석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비비추에 비해 잎이 넓고 둥근모양이며 하얀색의 꽃을 피우는데 특징이다.

꽃대도 비비추에 비해 굵고 곧게 자라며 꽃의 크기도 비비추보다 약간 큰 편이다. 또한 요즘 호스타(Hosta) 무늬비비추를 볼 수 있는데 잎은 전면에 줄무늬가 있거나 가장자리에 색상이 다른 컬러비비추, 무늬비비추 등이 있고 재배 환경이나 번식하는 방식은 거의 비슷하다.

우리 식물원에는 관람로 주변이 온통 비비추로 둘러 쌓여 있으며 초록빛 물결을 이루고 있어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가 하면 관람객들을 위해 식물원 상설전시장에 8월 10일까지 250여 점의 비비추를 전시하고 있다.

/강상규 청양 고운식물원 기획실장





제354회 임시회 조례안 등 24개 안건 처리

5분발언·건의안·긴급현안질문 등 도내 주요현안 점검 및 해결 촉구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7월 26일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등 총 24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2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열린 첫 임시회로,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충청남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산업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건강한 파크골프장 조성 위한 법령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천안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



“파크골프장 안전기준 마련해야”

충남도의회는 7월 26일 제3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이 대표 발의한 ‘건강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법령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파크골프장의 정기적인 농약 사용 조사 등 안전관리 체계 구축 ▲파크골프장의 농약 사용량 조사 및 농약 잔류량 검사 등 안전기준과 관련한 법령 마련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위원회를 구성했다.

안건 심의에 앞서 5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표준사업장 제언 등 도민 생계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조철기 의원(아산4)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GTX-C 아산역·온양온천역 노선 연장 사업을 점검했다.

홍성현 의장(천안1)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 말씀을 전한다”며 “발 빠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응급 복구에 노고가 많은 집행부, 봉사자 등 도민 여러분께 감사하다. 신속한 도민 주거 안정과 영농

재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청남도의회 다음 회기는 8월 27일부터 열리며,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2024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충남형 유보통합특위’ 제1차 회의 개최

김응규 위원장·정병인 부위원장 선임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7월 2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응규 의원(아산2)을, 부위원장에 정병인 의원(천안8)을 선임했다.

유보통합특위는 양질의 보육·교육환경

조성을 만들어 가기 위해 구성됐으며 2025년 6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위원으로는 박정식(아산3), 지민규(아산6), 신순옥, 이철수(당진1), 신영호(서천2), 방한일(예산1), 신한철(천안2), 유성재(천안5) 의원 등 총 10명이 있다.

이들은 충남형 유보통합을 위해 ▲충청남도 차원의 유보통합 사업계획

설정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 간 유보통합 추진단 지원 ▲유보통합의 효율적 추진 방안 논의 ▲유보통합 정책 발굴 및 제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응규 위원장은 “충남형 유보통합의 조속한 추진과 안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긴급현안질문

“GTX-C 온양온천역 연장 차질 없어야”



조철기 의원

조철기 의원(아산4)은 GTX-C 노선 연장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7월 초 박경귀 아산시장이 GTX-C 노선 연장에 관한 자체 타당성 분석을 지시했고, 이는 아산시장이 사실상 아산역·온양온천역 연장을 포기한 것이라고 해석된다”며 “이 때문에 아산 지역사회에서는 혹시 노선 연장이 무산될까 혼란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조 의원은 “도지사께서 수차례에 걸쳐 GTX-C 노선의 종

점으로는 아산의 도심인 ‘온양온천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공언하셨다”며 “아산시의 자체분석 결과가 부정적이라면 도지사의 공약 이행에 장애물이 생기는 격인데, 아산시의 이러한 결정이 공약 이행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GTX-C 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수원역까지 74.8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천안역까지 55.6km를 연장하는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이를 온양온천역까지 14.3km를 연장하는 것은 충청도지사의 공약이다.

법률고문 윤세연 변호사 위촉

법률 자문으로 의회 전문성 강화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기존 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7월 25일 의정활동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윤세연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신규

위촉했다.

윤세연 변호사는 대법원 국선변호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률사무소 회원 대표로 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관 활동을 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2026년 7월 31일까지 2

년 동안 의회 관련 법률 사안 및 정책에 관한 자문,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홍성현은 의장은 “다양한 민원과 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률의 쟁점에 대해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와 지식을 활용,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5분발언

국립호국원 유치 노력 촉구



김민수 의원은 도내에 국립호국원을 유치함으로써 충남이 고향인 국가유공자들에게 대한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조했다. 우리나라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묘지를 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선열공원으로 나누고 있으며, 종류에 따라 안장 대상에 차이가 있다.

호국원의 경우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이 안장 대상이다. 2024년 6월 기준 충남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수는 참전유공자 8976명,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4073명, 무공수훈자 3012명, 장기복무 제대군인 5246명 등 약 2만 3376명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호국원의 안장 가능 기수가 부족할 뿐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와 국가보훈부의 안장 대상 기준 확대 등으로 향후 개원될 호국원의 안장 가능 기수를 고려하더라도 추가 설치가 시급하다.

“전통사찰로 지역경제 활성화”



김옥수 의원(서산1)은 “도내 우수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충남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재방문을 높이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루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24년 1월 18일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에 계신 충남 전통사찰 현황을 살펴보면 수덕사, 마곡사 등 총 75개로, 전국 982개 중 7.5%에 달한다”며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일곱 번째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많은 전통사찰이 소재하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해당 지역의 특산물과 연계한 기념품 개발 ▲사찰과의 협의를 통한 운영시간 조정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외국어 가능 문화해설사 배치를 제안했다.

끝으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의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특례 확대에 따른 적극 대응 요청



이정우 의원(청양)은 정부의 ‘인구감소 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부는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2022년 6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의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다양한 규제가 여전히 지역 실정에 맞지 않게 적용되어 특례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4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 특례 확대 방안에는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 추진 과제보다는 국민·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 확대 방안이 담긴 것이 특징으로 ▲정주여건 개선(12건) ▲생활인구 확대(7건) ▲지역경제 활성화(7건) 등 3대 분야 26건이 담겨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방안 제시



이지윤 의원은 ‘충남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안했다.

충남도의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2023년 6월 전국 최초로 도내 대학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아산선문대 등 도내 12개 대학이 함께하며, 지역대학 내 장애인의 직업 영역 확대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가치·책임 실현을 위해서 마련됐다.

이 의원은 “채용 장애인노동자들은 각 기관에서 사무지원, 바리스타, 우편물 서비스, 병원 안내 및 수술실 보조 등의 역할을 원활하게 해내고 있다”며 “충남도는 장애인 일자리 분야에서 한 단계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아직 추진가능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들이 많다”며 “특히 도내 많은 기업과 함께 상생하는 장애인 일자리를 만드는 충남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우농가 긴급 지원책 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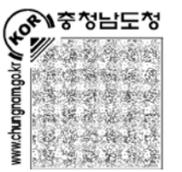
편삼범 의원은 ‘파산 위기에 놓인 한우농가 긴급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편 의원은 먼저 “현재 한우 비육우가 600kg 기준 2021년 797만 원에서 올 5월 603만 원까지 떨어졌고, 사료값은 2022년 1kg당 425 원에서 최근 545원으로 2년 만에 28% 증가했다”며 “반면 한우(1+ 등급) 도매가격은 최근 3년 사이 36.3% 급락했다”고 밝혔다.

“한우 도매가격 급락, 사료값 인상 등으로 이러한 한우농가의 비극은 이미 예고된 참사였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편 의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자율적인 수급 관리 방안과 사육 규모를 일정하게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우 도소매 가격 연동제, 한우 암소 저등급 정육 비축, 농가 사료 구매 자금 무이자 지원, 상환기간 연장 등을 정부에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후반기 의장단 인터뷰

제12대 충남도의회 후반기 출범 한 달이 지났다. “넓은 관행과 형식을 넘어 ‘가장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홍성현 의장(천안)은 “신익의 약속의 정치를 펼쳐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220만 도민이 도의회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도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소통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후반기 충남도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단과의 일문일답으로 향후 계획과 포부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넓은 관행과 형식 넘어 가장 일 잘하는 의회로 거듭날 것”



홍성현 의장

법고창신의 자세로 관행·권위·형식 탈피한 모범 의회 구현 선언
정책 개발과 법안 제정으로 지역 불균형·인구소멸 대안 찾아가야

제12대 후반기 의회 운영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해 가고자 넓은 관행과 권위, 형식을 탈피하고, 소통과 공감의 의정활동 지원으로 ‘가장 일 잘하는 새로운 의회’를 만들어 나가려 한다. 특히 제도 시행 3년 차인 정책 지원관 제도 및 사무처 조직의 합리적 운영으로 전문성 제고와 우수인력 확보 기반 마련에 힘써 나갈 것이다. 전국 지방의회의 표준이 되는 모범적 우수의회 구현에 앞장서 갈 수 있도록 유사 중복조례 제정 방지 및 좋은 조례 만들기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5분 발언 개선으로 본회의 운영 예측성을 강화해 가겠다.”

의회를 바꿔나갈 혁신 계획이 있다면?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해 가기 위해서는 넓은 관행과 형식, 권위적 행태 탈피가 중요하다.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자세로 전통은 존중하되 새로운 가치와 혁신을 구축해 갈 것이다. 구태의 연한 의전과 형식 간소화 등 시대변화에 어긋난 관행적 업무처리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고, 사무처 핵심 기능인 전문적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

제12대 충남도의회 후반기 의장 당선 소감은 “제12대 충남도의회 후반기 출범에 많은 지지와 성원 보내주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드립니다.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소통’이라는 핵심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의회 안에서 머물지 않고 항상 현장에 찾아가 도민은 물론 의원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고 함께 상생해 가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로 직원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의회 조성에 힘쓰겠다.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진정한 의회의 독립을 이뤄가겠다. 그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회 책임과 위상은 강화됐으나, 예산편성권과 조직구성권이 없어 반쪽짜리에 불과한 인사권 독립에 그쳤다. 충남도의회를 넘어 17개 광역의회가 하나 되어 지방의회의 역량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해 가겠다.”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집행부는 도민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의회는 이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다. 따라서 의회는 당을 떠나 합리적 요구와 개선안을 제시해 갈 것이며, 집행부는 의회와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갈등 반복이라는 비생산적 대처 구도보다는, 서로 간의 긴밀한 협치를 통해 도민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 도민의 이익과 삶의 질 향상보다 더 큰 당리당략은 있을 수 없다. 여야를 떠나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며, 잘하고 있는 부분은 적극 협조해 갈 것이며 잘못된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방향

제시를 해나갈 것이다.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해 나가겠다.”

도 현안에 대한 의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충남도는 지역적 불균형이 심한 지역으로, 지역적 불균형 격차를 메우고 충남도가 고른 성장을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험지수 2023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고위험 지역이 118개(52%)가 해당하며, 충남은 15개 시군 중 12개가 속한다. 이에 충남 도내 상대적 낙후 지역이 남부권 6개 시군(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청양)과 서해안권(보령·서천)을 더해서 서남부권 균형발전 전략계획을 수립 중이다. 서남부권은 정주 기피 지역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크고, 총생산 규모도 북부권에 비교해 전반적인 약세를 보인다. 급속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대두되면서 맞춤형 발전 전략이 시급한 상황으로,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내 균형발전을 촉진해 가겠다. 같은 시군에서도 지역적 격차 차이가 큰 상황으로 공정 및 균형성장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켜 갈 것이며, 지역 특성과 필요에 맞는 정책 개발과 관련 법안 제정으로 지역 불균형 및 인구소멸 대안을 위한 해법을 찾아가겠다. 도정 현안에 적극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되 의회는 이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견제하고 감시함과 동시에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 방향 제시에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에 앞장”



정광섭 제1부위원장

여야 간 ‘협치’ 하고 집행부와 ‘소통’

안을 마련해 갈 것이다. 실제로 지난 2년간 농수산해양위원회에 있으면서도 농어업인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모색에 앞장서 왔다.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해서 힘써나가겠다. 또한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가공 및 유통 체계 개선 및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브랜드화 추진으로 시장 접근성을 높여나가겠다. 충남 농어업 발전을 통해 모든 도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가겠다.”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은?

“도의회와 집행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파트너이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도정을 이끄는 쌍두마차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힘써나갈 것이다. 우선 정기적인 소통으로 상호 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교환해 나갈 것이며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 의회는 도 집행부의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도 집행부는 의회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갈 것이다. 농어업, 환경,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들이 직면한 문제를 논의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해 나가겠다.”

여야 협치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정도(正道)’만 걸어가면 된다고 본다. 협치와 소통이 바로 정도라고 판단한다. 여야 모두 합리적인 분들이라서 소수당이라 충돌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중간에서 의장님을 비롯해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다. 물론 정책 사안에 있어 여야 의원 간 다소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도의회는 여야를 떠나 의원 한명 한명이 독립적 입법기관 역할을 하다 보니 의견이 상충하는 일이 비밀비재 하지만 정치적으로 접근하기 보다 대의를 앞세워가도록 하겠다. 협치와 소통을 통해 서로 간 불협화음 없이 잘 풀어가겠다.”

제12대 충남도의회 후반기 제1부위원장 선출 소감은 “후반기 제1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많은 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의장을 도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힘써 가도록 하겠다.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충남도의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

앞으로 후반기 의회 활동 방향은?

“농어업은 우리 지역 경제의 근본적인 기초로, 지역발전을 위한 필수적 요소다. 도민을 위한 복지 혜택은 물론 농어업인을 위한 정책과 지원에 집중해 가고자 한다.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

“충남도 특성에 맞는 정책적 대안 제시”

제12대 충남도의회 후반기 제2부위원장 선출 소감은 “도의원 대표로 제2부위원장을 맡게 돼 영광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33년이 지났으며, 새로운 자치분권을 위해 30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도 지방자치는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주소다. 의장님과 함께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선두 주자로 앞장서 가겠다.”

의회 현안 사업과 해결 방안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지방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두게 됐으며, 조례 제·개정 및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 의결 사항 지원, 의정 자료 취합·분석 등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역시 48명의 의원을 보좌할 24명의 지원관을 채용,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배치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관의 종합적인 사고 등 진정한 싱크탱크의 임무를 수행해 가기 위해서는 전문적 컨트롤 타워가 마련돼야 한다.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이 제고돼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관 또한 늘려 ‘지방의원 1인당 1명 지원’ 체계로 개선돼야 한다.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더욱 안정적인 제도운영에 힘써 가겠다.”

도정 현안 및 해결 방안은?

“경기 회복 둔화와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필수적인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일회성 행사 사업 등은 지양하고, 도민 삶과 밀접한 사업을 유지해 가야 한다. 특히 도지사 정책사업에만 집중하다 보니 정작 민생사업 예산은 삭감되거나 지연되고



오인철 제2부위원장

컨트롤 타워 마련 등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

있다. 정책사업의 경우 국비 및 세수 확보를 고민하는 방안을 찾아가고, 적어도 도민들에게 검증돼 확대돼야 하는 사업들을 축소하거나 일몰시켜 가는 일이 없도록 신중리 처리해 주길 당부한다. 또한 베이밸리 메가시티 정책사업의 경우 충남도와 경기도 등 두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인 만큼 의회 역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충남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도의회와 협력 특위를 조성하는 등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 가겠다.”

지역 현안 과제는 무엇인가?

“제일 먼저 천안의 산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잦은 집중호우가 발생해 하천 범람 및 산사태 등 재난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100mm 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산동천 주변 아파트에 물이 범람해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았다.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전체 구간에 대한 하천 정비가 힘들다면 당장 피해가 잦은 구간부터 시급히 정비해 갈 방침이다.”

